2011.02.02/09 NO.96
gonggam.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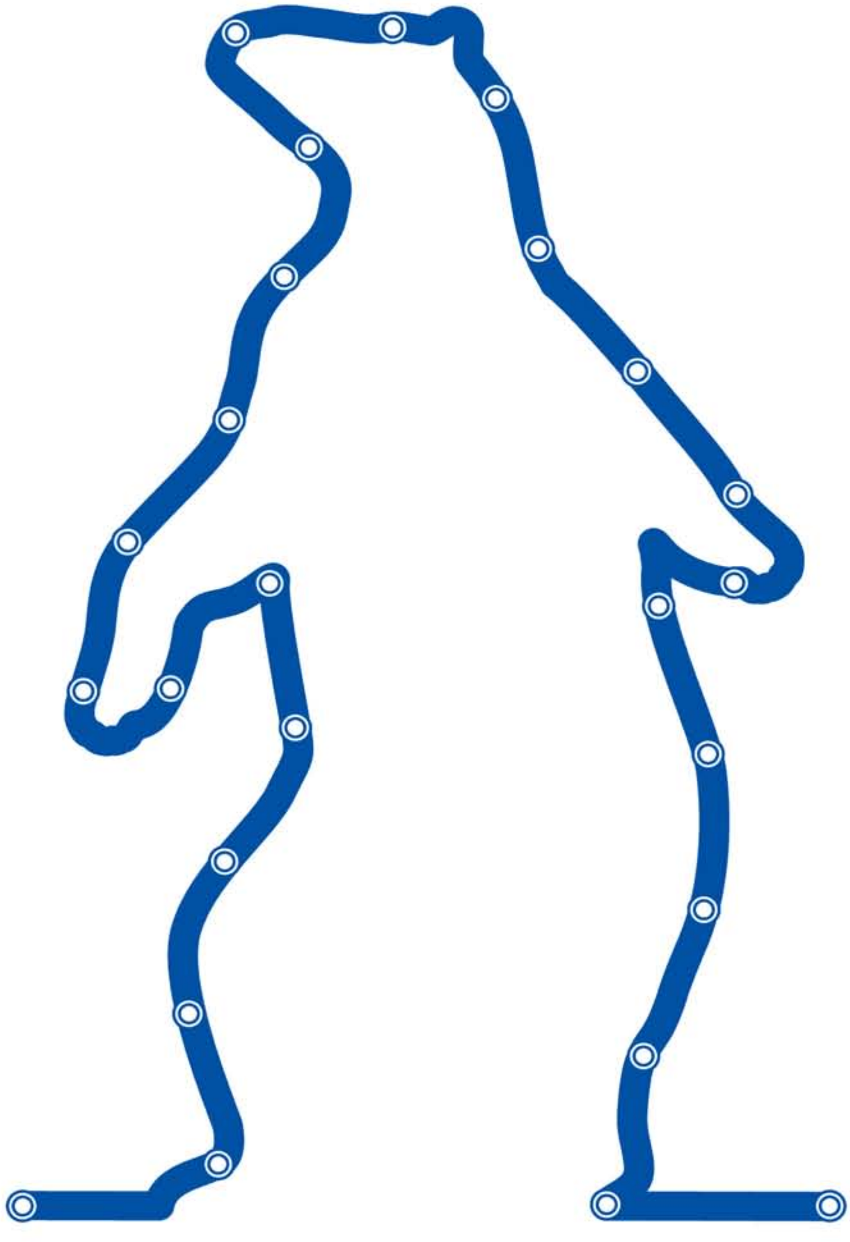
Weekly 공감



공공·민간 쌍끌이로 일자리 창출
"젊은이들이여! 세상에 도전하라"
P23~47

중점기획 "지금은 서민복지가 우선" 상생하는 한국형 복지 P14~21

해병대 입대하는 현빈 "이게 최선입니다, 확실해요" P50~51



북극곰 살리는 버스?

우리나라 CO_2 배출량 세계 7위. 운송수단 배기가스 중 자가용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 75%,
우리가 편하게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이
지구 반대편에선 북극곰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출퇴근길에 자가용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세요
CO_2도 줄이고 북극곰도 살리고!
생활 속 작은 실천에 지구는 더 푸르러집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 공익광고협의회

복지, 일자리와 성장이 함께해야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무상복지 논쟁이 한창이다. 무상복지 모형이 가능한 것일까. 또 바람직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모형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도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복지에 필요한 재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지표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제일 빠르게 증가했고 고령화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1인가구가 늘면서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빈곤층 증가로 인해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도 급증하고 있다. 사회복지 지출비중이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0.8퍼센트로 OECD 평균(4.9퍼센트)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재정에 의존한 사회복지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복지지출을 무분별하게 늘리다가 재정이 악화돼 경제위기가 닥치자 복지가 후퇴하는 모순이 각국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국가재정에 의존한 전통적 사회복지 모형을 수정하고 새로운 모형을 찾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무상복지는 국가재정에 의존한 사회복지보다 시대흐름에 더 역행하는 것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세계화, 고령화, 여성화 등 경제사회 변화에 맞는 새로운 사회복지 모형이 필요하다. 그것은 복지와 성장이 동반적 목표가 되며 국민이 복지의 객체이자 주체가 되는 '인적자원 주도형 성장복지 모형'이다.

국가재정에 의존한 사회복지는 세계 각국에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무상복지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에 비추어 볼 때 복지와 성장이 동반적 목표가 되는 인적자원 주도형 성장복지 모형이 성공할 가능성이 큰 나라다.

국민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 소득을 높이고, 정부는 이것을 어렵게 하거나 불공정하게 결정되도록 만드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취업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히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가 개인의 복지도 향상되고, 불공정한 고용관행이 개선되면서 소득격차가 줄어들게 된다.

인적자원 주도형 성장복지 모형의 필요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더 절실하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대다수 국민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으로, 또 정규직과 여성 비중이 높은 비정규직으로 단절된 현상이 다른 나라보다 심각해 인적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본격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적 노력도 부족했다.

우리나라는 문화적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인적자원 주도형 성장복지 모형이 성공할 가능성이 큰 나라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는 정부뿐 아니라 개인까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기술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한 근로자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잠재력이 일자리의 지평을 열고 새로운 복지를 뒷받침할 것이다. G

Contents

Weekly 공감
2011.02.02/09
NO.96 통권 197호
http://gonggam.korea.kr



표지 이야기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사회지도층'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배우 현빈은 자신의 대사처럼 해병대 입대이라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 사진 · 조선DB

발행일 2011.2.2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정병국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주)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알림 제작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는 당분간 싣지 못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러스트 · 유현호

기 획 특 집

두드려라! 취업문이 열린다

경제 회복의 결실은 누구나 느껴야 한다. 그 결실을 느끼는 곳이 일자리여야 한다.
이러한 생각들이 모여 공공과 민간 부문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열정적인 그대들의 젊음을 불태울, 눈처럼 쌓인 당신들의 경험을 풀어낼 그런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10


08





공감 라운지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95호(1월 26일자) 기획특집 '100세 시대의 이상 복지'와 관련해 많은 독자가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하루빨리 복지논쟁 마무리돼야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특집이었습니다.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의 실패한 복지정책을 보니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누림과 책임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부터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의 모습까지 두루 알 수 있었네요. 하루빨리 복지논쟁이 마무리되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진**

노인이 함께 즐기는 복지문화

"노인분들이 함께 일하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성숙한 복지문화가 정착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면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진희**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말하는 청렴사회'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기사에 대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부정부패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하신 인터뷰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반부패 정책이 잘 시행되어 공직사회의 부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수**

'전력 사용 자제하세요' 기사를 보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얼마 전 공단의 전력이 방전되었다는 소식뿐만 아니라, 겨울철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평소 환경보호를 외치면서도 막상 전력이 끊길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기사를 읽으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진식**

'구제역 설 연휴 이전에 진정시킨다'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연일 구제역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 또한 이번 설에 고향에 내려갈 수 있을지 미지수고요. 구제역이 이미 많이 확산되었지만,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 그나마 안심입니다. 구제역 조기 종식에 관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항들도 기사에 나와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루빨리 구제역이 종식되어, 귀향길에 오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지연**


누림 · 책임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공정사회"

알립니다

행정안전부 '새 국새 모형 공모'


행안부가 제시한 '인뉴' 부문 모형.

행정안전부에서는 새로운 대한민국 국새(제5대 국새) 모형을 공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이 참여 가능하며 '국새모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 선정한다. 당선작만 새 국새 제작 모형으로 사용되며 금 합금으로 제작된다.

모집 부문 | ① 인뉴 ② 인문
접수 기간 | 2월 14일까지
결과 발표 | 2월 25일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발표
시상 내용 | 당선작(인뉴 1점, 인문 1점, 상금 각 5백만원), 우수작(인뉴 1점, 인문 1점, 상금 각 2백만원)
접수 방법 | 직접제출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정부중앙청사 1917호)
우편제출 (우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국새모형공모담당자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02-2100-3133, 3138 www.mopas.go.kr

환경친화적인 강 이용 아이디어 모집

국민들의 여가시간이 증대되면서 강이 여가생활을 즐기는 선호공간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국민 모두가 친환경 강 이용 문화 만들기에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당선자에게는 환경부장관상과 소정의 상금이 주어진다.

접수 기간 | 2월 15일까지
응모 자격 | 환경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개인 또는 팀(4인 이하)
공모 주제 | ① 친환경 강 이용방법으로 어떤 것이 좋을까요?
② 강을 이용하면서 환경을 보전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③ 친환경적인 강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어떠한 제도가 도입 또는 개선되어야 할까요?
접수 방법 |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에서 제안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우편 및 방문접수
(우130-805)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3동 497-66 환경보전협회 7층 '환경친화적인 강 이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담당자 앞

환경보전협회 ☎ 02-3407-1562 www.epa.or.kr

공감퍼즐

	1		2		3
			4		
	5				
6			7	8	

빈칸의 답을 주소, 연락처와 함께 2월 8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1. 잠깐 동안 머물러 쉴 수 있도록 마련하여 놓은 장소. 고속도로 ○○○.
4. 말끝. "남의 ○○○를 잡아 시비를 걸어서야 되겠나."
5. 바닷물고기로, 몸은 길며, 등은 녹색을 띤 갈색, 배는 은빛 흰색이며, 모래 속에 숨어 삽니다. 주로 젓갈을 담그고, 이것 액젓은 김치 담글 때 많이 쓰이죠.
6 벌레가 실을 내어 지은 집. 누에○○.
7. 차두리에게 차범근은?

세로
2.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는 나라. ○○○○ 해적.
3. 나와 너, 또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 We.
5 "○○ ○○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6. 옛 궁궐. 가족과 함께 명절 때 즐겨 찾죠.
8. 버선만 신고 신을 신지 않은 발. "내가 첫 휴가를 받아 시골집에 당도하자 어머니는 ○○○로 뛰쳐나와 나를 끌어안으셨지."

〈Weekly 공감〉 94호(1월 19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지난해 **3** 백세 **4** 외삼촌 **5** 소수림왕 **7** 구제역
세로 **1** 지세 **2** 해외연수 **3** 백두대간 **5** 소화제 **8** 왕진

〈Weekly 공감〉 94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은선 · 충남 논산시 취암동
염진우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2동
전하진 · 충북 제천시 왕암동
정주비 · 서울 구로구 개봉동
최소연 · 전북 군산시 신영동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 ⑫

꿈꾸는 사람들의 힘, 세계를 우리 품 안에!

김경훈 (주)예감 대표이사



연합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시 창작 활동을 했는데요. 당시 저희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영화나 연극 등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 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는 어른이 되었고 한 친구가 고등학교 때 했던 약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태권도로 공연 한번 만들어 보지 않을래?"

저는 그 순간 태권도라는 단어가 제 앞에 다가와 제 머리를 '땅' 치고 날아간 느낌이었습니다. 태권도로 작품을 만든다면 이것이야말로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작품을 만들어 보자며 의기투합했습니다. 정말 모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모였습니다.

2003년 10월, 저희 작품의 이름으로 첫 공연을 올리게 됐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인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예예술 코믹극'이라는 어떤 특이한 장르성 때문에 마니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분들의 힘으로 공연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급기야 2005년 전 세계적인 무용페스티벌인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1천8백여 개의 작품 중에서 저희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시장에서 굉장히 커다란 인기를 얻었습니다.
당시 그 페스티벌의 상이란 상은 모조리 휩쓸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영국 왕실 로열버라이어티 쇼' 초청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브로드웨이에 저희 전용극장이 생겨났습니다. 점차 〈점프〉라는 공연이 세계적인 공연으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점프〉의 성공 후 스스로를 바라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만들 때는 열심히 하시는데 만들어 놓고 나면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콘텐츠는 살아 있는 생명이거든요. 저는 다른 나라에서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들의 문화코드를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세계적인 연출가들을 불러서 작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점프〉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누구나 행복하게 놀 수 있는 작품으로 재탄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열정으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패도 있고 시련도 있겠지만, 고정관념을 깨고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점프할 수 있을 겁니다.

정리 · 이미령 인턴기자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2010년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열린 대(對)국민 강연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의 세부 내용을 '공감코리아(www.korea.kr)'에서 발췌 요약해 연재합니다.

공감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전경욱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1. '청해부대, 피랍선원 구출' 기사를 관심 있게 봤습니다. 더 이상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정부 대외정책의 강경한 의지표현과 함께 군사강국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킨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2.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금, 노인 부양과 복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노인일자리 창출이 절실히 필요한 점을 잘 역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생산적이고 자율적인 노후생활의 보장을 통해 황금빛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3. 계속되는 혹한의 날씨 속에서 건강관리와 함께 섭취하면 좋을 음식들을 소개해 주세요.

김성민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1. '복지 거둬들이는 일본'이란 기사를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경우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고령화 진척률도 비슷하고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복지 공약도 비슷하고 대책 없는 공약 남발도 비슷합니다.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제대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2. '요즘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물가가 너무 비싸서 살기들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연일 나오고 있는 무상복지란 말에 더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세상에는 공짜란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무상인지 아니면 국민부담률을 높이는 혜택인지 국민들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3. 설 연휴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지, 공연, 영화 등의 정보를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독자의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 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2월 9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 주십시오. '공감마당'에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특집으로 다룬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구제역 종식
설 연휴가
고비입니다!

국민여러분, 정부는 전국의 모든 소와 돼지에 대해 설 이전에 예방접종을 완료합니다.
예방백신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는 기간(2주간)은 방역에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국민이 이동하는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 고향에 가시더라도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 주십시오. 방문했다면 차량의 내외부, 사람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다녀오셨다면 귀국 시 검역당국에 신고 하고, 소독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농가는 농장 소독을 강화하고 출입차량과 사람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조선DB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의 농장주 황인식씨는 면역력이 약한 소를 따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구제역을 극복, 2백50여 마리 소를 모두 살렸다.

"설 연휴 축산농가 방문 자제해 주세요"

정부, 예방접종 완료돼도 면역형성까지 시일 걸려… 귀성객 주의사항 당부

구제역 발생이 두 달을 맞은 가운데 일 년 중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다. 많은 귀성객이 고향을 찾을 계획을 갖고 있겠지만 이번 설만큼은 축가농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분석 결과 전국을 휩쓴 이번 구제역이 결국 사람과 차량 이동 때문에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구제역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 귀성객들에게 축산농가를 방문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과 구제역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난 1월 26일 공동 담화문을 발표, "예방접종이 완료돼도 면역이 형성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설 연휴가 구제역 차단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두 본부장은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군인·경찰, 자원봉사자 등과 온 힘을 합쳐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두 본부장은 이어 "살처분을 최소화하고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전국의 모든 소에 대해서는 이미 접종을 완료했고, 돼지에 대해서도 설 이전에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우려하는 매몰지 환경관리도 철저히 하고, 안전한 먹

는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구제역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두 본부장은 "구제역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며 "구제역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다"며 다음 사항을 당부했다.

고향 방문길 방역 이동통제초소 통과 때 반드시 서행을

첫째, 축산농가 방문 자제다. 축산농가 및 구제역 발생 지역을 꼭 방문해야 할 때에는 차량 내부와 외부, 그리고 사람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둘째, 구제역 발생 국가로의 여행을 삼가야 한다. 지금도 하루에 30여 명의 축산인이 구제역 발생 국가를 다녀오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구제역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귀국할 때에는 검역당국에 신고하고, 공항과 항만에서 방역소독을 받아야 한다.

셋째, 축산농가는 예방접종을 했다고 해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예방접종 후에도 최소한 1개월 이상은 농장 소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사료차량 등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동통제와 소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구제역은 사람에게 아무런 해가 없으므로 우리 쇠고기와 돼지고기 소비를 망설일 필요가 없다. 우리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끝으로, 고향 방문길에 방역 이동통제초소를 통과할 때에는 차량을 서행하는 것이다. 즐거운 고향길이 다소 밀릴 수도 있고, 서행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안전과 철저한 소독을 위해서는 이동통제초소에서 서행해야 한다.

두 본부장은 설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게 될 공직자를 비롯한 많은 방역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내며 "앞으로도 정부는 구제역 종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G

글·박경아 기자



조선DB

설이 일주일여 남은 1월 24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매표소 전광판에 구제역 종식에 동참하자는 안내문구가 나오고 있다.

한파 지속으로 차단 방역 어려움 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월 24일 그동안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제역 확산 원인 및 지역별 전파경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말 발생한 구제역이 과거와 다르게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초기대응 미흡과 추운 날씨로 인한 방역의 어려움 때문으로 나타났다.

경북 안동지역 양돈단지의 경우 2010년 11월 28일 처음 신고됐으나 실제 같은 단지에서 11월 23일 의심축이 신고되어 간이 항체키트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면서 초동방역 조치가 늦어졌던 것이다. 같은 단지의 다른 돼지에서 항체가 검출된 것을 볼 때 11월 중순 이미 구제역이 발생했고, 이동통제 전에 농장 인근이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구제역 피해가 가장 심한 경기도 북부의 경우 안동에서 구제역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되기 10여 일 전(2010년 11월 17일) 안동 발생농장의 분뇨가 그곳으로 가면서 구제역이 전파된 것으로 분석됐다. 파주와 연천 지역의 돼지농장들이 이미 감염된 상태에서 이동통제 전에 경기도 내 타 지역으로 구제역이 많이 전파됐다는 것이 전국 확산의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또 "예년과 달리 이번 구제역은 겨울에 발생했고, 한파가 지속되어 차단방역에 어려움이 컸던 것이 확산의 또 다른 요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제역은 잠복기 2주 동안 특별한 증상 없이 바이러스를 배출한다. 이 때문에 이동통제 전에 축산모임, 양돈단지 또는 한우농가 간의 임신감정이나 인공수정, 사료차량의 출입, 도축장 이송차량의 방역 미흡, 오염지역 거주자의 청정지역 농장방문 등이 구제역을 확산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백신 예방접종 확대 등 다각적 해결방안 모색

"우리나라에서 구제역 백신을 자체 생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월 24일 제5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이렇게 밝히며 "백신 예방접종으로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2백만 마리 이상의 소와 돼지를 살처분한 것은 처음이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는 일찍이 구제역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일이 있다"며 "유럽에서 시작돼 남미, 동아시아로 급속히 확산된 구제역으로 인해 1997년 대만에서는 4백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살처분됐고, 영국에서는 2001년 6백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매몰됐다"고 전했다.

그 후 유럽의 축산 선진국들은 성능 좋은 백신 개발과 예방접종에 힘썼고, 그 결과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구제역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뒤 최근 유럽연합(EU)도 백신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꿨고, 2001년 구제역이 발생한 남미의 우루과이는 백신 접종 이후 꾸준히 철저하게 한 결과 지금까지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돌아보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대규모 구제역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깨닫게 됐다는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그물처럼 연결된 오늘날에는 구제역 바이러스와 같은 위험 요인도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출입국 검역의 효과는 한계가 있어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백신 예방접종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설 명절 전에는 구제역이 다소 안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렇더라도 평소 예방과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번 설 연휴 귀성길에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부활의 한강, 치유의 금강, 여유의 영산강…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낙동강서 發源〈발원〉

부활(復活)의 한강, 치유(治癒)의 금강, 여유(餘裕)의 영산강, 풍류(風流)의 낙동강. 4대강살리기 사업이 공정의 절반을 지나 완공을 바라보면서 4대강 주변에 지역별로 각기 다른 주제의 문화관광 인프라가 조성된다. 그 선도사업이 낙동강의 나루 문화 복원과 친환경 레저스포츠 거점 조성 계획이다.

4대강에 흐르고 있는 문화와 역사, 자연을 최대한 살려 관광과 레저스포츠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계획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그 출발점이 낙동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6일 대구 달성군 달성보 건설단 회의실에서 4대강과 섬진강변 등 총 25곳에 2015년까지 2천21억원을 투입하는 '강변 문화관광권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부터 추진할 '낙동강 선도사업 착수설명회'도 함께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 '강변 문화관광권 개발 기본계획' 발표

이날 설명회에는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과 경상남북도, 대구광역시와 달성·고령·창녕 등 사업대상지 9개 지자체 담당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강변 문화관광권 개발 기본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 6월 발표한 '강변 문화관광개발 마스터플랜'이 시발점이 됐다. 지난 1년여 동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8개 지자체 지역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 지자체와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완성됐다.

모철민 1차관은 "이번 계획은 강변 문화관광 자원을 발굴해 강의 매력도를 높이고 편의성을 증진해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4대강살리기의 보(洑) 공사와 준설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시점인 올 가을부터 대대적으로 문화관광활성화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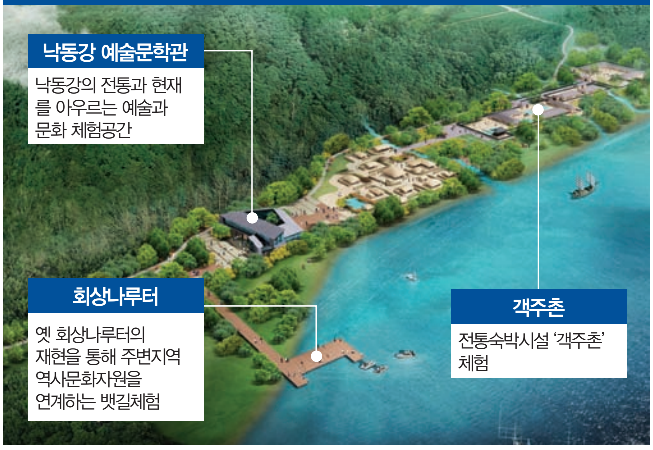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강은 부활(復活), 금강은 치유(治癒), 영산강은 여유(餘裕), 낙동강은 풍류(風流)를 콘셉트로 문화관광 인프라가 조성된다.

한강은 문화교류의 중심축이자 신(新) 문화물길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계획 아래 한강변의 풍부한 역사적 장소를 기초로 문화명소를 개발하고 수도권 배후에 여가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생태계가 잘 보전된 금강은 자연생태의 보고, 녹색관광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전략이 세워졌다. 금강 수변은 녹색에너지를 활용한 에듀테인먼트 관광과 수변의 지역산업을 활용해 '융복합 관광자원'으로 개발된다.

영산강·섬진강은 남도문화의 정수인 맛과 멋을 한껏 살린다는 계획이다. 영산강 역사문화자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강변 생활과 예술문화를 창조적으로 활용한 수변공간이 만들어진다.

객주 테마 상주 회상나루



다양한 문화 유적이 인접한 낙동강에는 역사와 자연, 문화의 다양성을 활용한 공간과 친수형 여가레포츠 환경이 조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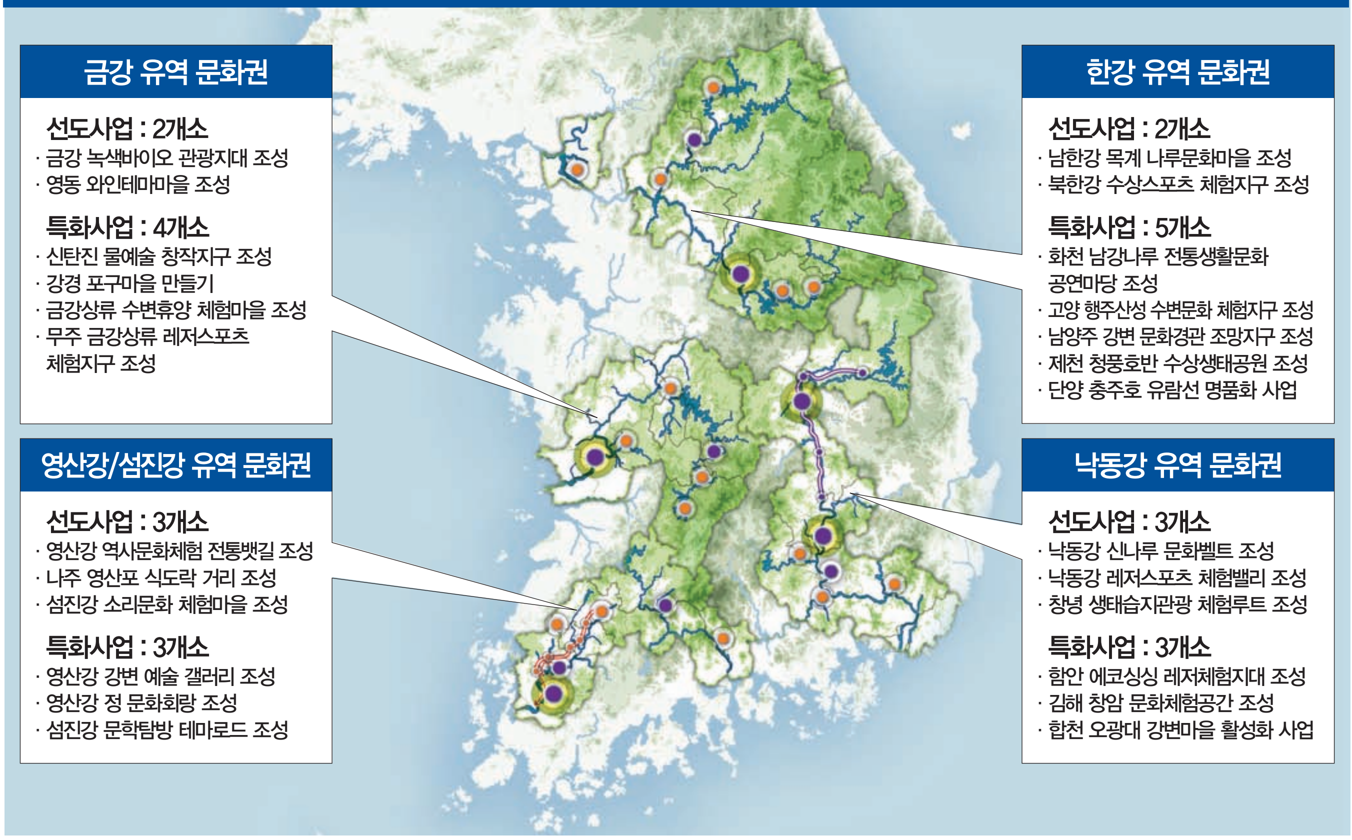
강변 문화관광권 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될 25개 사업은 다시 '선도사업'과 '특화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25개 사업 중 가장 빨리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게 될 사업은 낙동강 선도사업으로 ▲낙동강 신(新)나루 문화벨트 조성 ▲낙동강 레저스포츠 체험밸리 조성 ▲창녕 생태습지관광 체험루트 조성이다.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사업은 전통나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낙동강 주변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이 되도록 한다는 구상 아래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낙동강에는 상류지역에서부터 안동 개목나루, 예천 삼강나루, 상주 회상나루, 구미 비산나루, 고령 개경포나루가 복원된다.

안동 개목나루에는 '풍류'를 핵심테마로 경북의 전통명주를 즐길 안동명주촌, 수상문화공연을 체험할 공연장이 조성된다. 상주 회상나루에는 '객주'를 테마로 전통숙박단지 '객주촌', 낙동강의 과거와 현대 예술문화 체험공간 '낙동 예술문화관'이 들어선다.

문화체육관광부 '강변 문화관광권 개발 기본계획'



구미 비산나루에는 '디지로그'를 핵심테마로 구미시 디지털테크놀러지를 활용한 체험공간 '디지로그 나루문화체험관'이 만들어진다. 또 고령 개경포나루에는 팔만대장경을 머리에 이고 행진하는 이운(移運)식을 체험할 수 있는 '팔만대장경 메모리얼광장'이 들어선다.

낙동강 경관 거점 12경으로 선정돼 현재 복원이 계획되어 있는 예천 삼강나루에는 전통주막, 수변 레저스포츠 체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낙동강 레저스포츠 체험밸리 조성사업은 낙동강 중류의 백사장과 산림자원을 레저활동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 아래 달성 수상레저지구와 부례 산악레저지구를 만든다.

25개 사업, '선도사업'과 '특화사업'으로 나눠 추진

달성 수상레저지구에는 수상레저지원센터, 트레이닝 마당, 케이블스키장, 강수욕장 및 캠핑장이 들어서며, 부례 산악레저지구에는 2, 3개의 산악스포츠코스와 산악레저지원센터, 바이크텔(숙박시설), 강과 산을 연결하는 리버짚라인 등이 들어선다.

창녕 생태습지관광 체험루트 조성사업은 강과 습지, 문화를 향유하는 낙동강 생태문화지대를 창출한다는 계획하에 남지 수변여가지구와 낙동강 습지체험지구로 나눠 개발된다.

남지 수변여가지구의 경우 낙동강 살리기 19공구 사업과 연계해 계류장과 선착장, 강수욕장, 강수테라피장이 들어선다. 습지체험지구에는 '창녕 10대 습지'를 활용해 체험과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습지정보관, 수생식물정원, 환경 놀이터, 정보키오스크 등이 만들어진다.

낙동강 선도사업에는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 2백79억원을 비롯해 ▲레저스포츠 체험밸리 조성 1백30억원 ▲창녕 생태습지관광 체험루트 조성 70억원 등 총 4백80억원이 투입된다. 이들 사업은 오는 2013년 완료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문오 달성군수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14, 15개의 나루터가 있었는데 이번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사업은 의미 있는 나루터 복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선도사업에서는 빠져 있으나 대구 시민들의 애환과 낙동강의 상징성이 많이 담긴 삼원진나루터 복원도 향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낙동강에서는 3개 선도사업 외에 특화사업으로 ▲둑방문화를 활용한 '함안 에코싱싱 레저문화 체험지대' 조성 ▲전통민속가면극 오광대 테마로 하는 '합천 오광대 강변문화마을' 활성화 ▲유휴시설이 된 창암취수장을 문화체험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김해 창암 문화체험공간' 조성 등이 함께 추진된다. G

출처·공감코리아



1

바닷속 유물들 세상 밖으로

고대부터 인간은 해양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수많은 해양활동을 해 왔다. 이로 인해 많은 수중문화재가 바닷속에 묻혀 있다. 수중문화재란 물 속에 잠겨 있는 유구와 개펄 속에 매몰된 선박의 선적물 등의 유물을 총칭하는 용어다. 지난 1월 5일, 문화재청에선 바닷속에서 발견·신고된 중요 유물을 수록한 도록 〈바닷속 유물, 빛을 보다〉를 발간했다.

〈바닷속 유물, 빛을 보다〉는 그동안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던 수중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하고 목록화 작업을 시도한 데 의의가 있다. 1967년부터 2008년까지 발견·신고된 유물 244건 1913점에 대한 지역별 출토양상과 내용을 살피고, 학술적 의미가 큰 233점을 선별해 설명과 사진을 수록했다. 수록된 유물은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아우르고 있다.

고려청자, 분청사기, 도기 등 도자기류를 비롯해 고대 동전, 총포, 마제석검 등이 담겼다. 성낙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은 발간사를 통해 "유물의 대부분은 어부나 선원 등 일반인들에 의해 발견·신고 됐으며, 이런 신고가 계기가 돼 신안선, 완도선, 태안선 등의 중요한 수중발굴조사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도록은 시중 판매는 하지 않으며 관련 연구기관과 전국 도서관으로 무료 배포, 연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리·박근희 기자 / 사진·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제공



1 청자상감유로수금문대접 | 고려시대
높이 8.5 · 입지름 18.5 · 굽지름 6cm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충남 보령시 외연도와 전북 군산시 연도 사이 해저에서 발견됐다. 내외면 모두 상감기법을 사용해 문양을 장식했다. 원각의 한가운데에는 국화절지문을 백상감했다. 전면에 미세한 금이 퍼져 있다.



2

2 백자사이병 | 중국 원나라시대
높이 29.6 · 입지름 10 · 굽지름 7cm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전남 신안군 흑산면 하태도리 서북방 9마일 해상에서 발견됐다. 긴 목, 팽이형 몸체로 이루어진 병이다. 어깨에 부착된 4개의 귀 중 1개가 소실됐다.

3 상평통보 | 조선시대
지름 대 3 · 중 2.6 · 소 2.2cm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충남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무창포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조선시대 만들어 썼던 엽전으로 이 상평통보는 어영청과 진휼청 등의 관청에서 주조한 것이다.



3



6



7



4

5

4 분청사기박지모란문병 | 조선시대

잔존높이 28.5 · 굽지름 9cm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고대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것으로 잘록한 목과 저부로 내려갈수록 팽만해지는 동체를 가진 분청사기병이다. 구연부(아가리 부분)가 전부 소실됐다.

5 도기녹유양이주구호 | 중국 청나라시대

높이 28.5 · 입지름 11.7 · 굽지름 15cm
국립광주박물관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해상에서 발견됐다. 짧은 목을 가진 호이다. 둥근어깨가 최대경을 이루며 저부까지 사선으로 좁아진다. 왼쪽면에는 세로로 남주점(南酒店)이라고 쓰여 있다.

6 분청사기발 | 조선시대

높이 9 · 입지름 19 · 굽지름 5.5cm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충남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측사면이 둥근 곡선을 이루며 올라오다가 구연이 외반하는 발이다. 굽 안바닥에는 손으로 누른 자국이 남아 있다. 구연의 일부가 소실됐으며 깨진 부분을 접합해 복원했다.

7 청자양각연판문반구병 | 고려시대

높이 26.8 · 입지름 8.7 · 굽지름 8.8cm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근해에서 발견됐다. 반구형의 구연과 잘록하고 긴 목을 가진 반구장경병이다. 몸체의 최대경을 이루는 부분에 굵은 음각선으로 연꽃잎의 윤곽선을 그린 후 세로로 깎아 내려 연꽃을 표현했다. 굽과 구연의 일부가 소실됐다.

한국형 복지 구조로 4대 보험 완비

성장·복지 균형 맞춰 '사회안전망' 제공

우리나라는 그동안 건전 재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추구 해왔다.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면서도 '한국형 복지'로 복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해 온 것이다. 하지만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복지지출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지금의 복지제도만으로도 재정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선DB

1월 17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마련된 보금자리주택 홍보관. 지난해 사전예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본청약 신청을 하고 있다.

복지가 이슈다. 선진국 수준으로의 무상복지 확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으나 복지의 역사를 따져 본다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못지않다.

영국은 16세기 빈민구제를 위한 '구빈법'을 만들어 복지국가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미 조선시대에 구황청, 혜민국, 제생원 등 구휼기관을 두었다. 〈토정비결〉을 지은 토정 이지함이 선조 때 아산 현감 시절 세운 '걸인청'은 일종의 '재활센터' 역할을 했다.

6·25전쟁으로 인해 전쟁고아와 피란민 등 엄청난 복지수요가 발생했던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진국 수준'을 지향하며 복지제도의 틀을 다져왔다.

국제사회에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변신한 첫 번째 국가답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완비에 소요된 기간(32년)도 미국(63년), 프랑스(60년), 독일(1백5년)에 비해 절대적으로 앞선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우리나라는 성장과 복지를 함께 추구하는 '한국형 복지'를 표방해 왔다. 실질적인 자립과 재기를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정책들로, 든든학자금, 미소금융, 보금자리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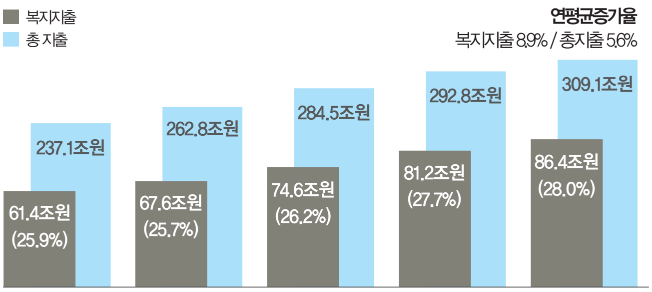
올해 복지지출 비중 28퍼센트로 역대 최고

지난 연말까지 든든학자금(2010년 도입)을 받은 사람은 23만3천 명이다. '취업 후 상환'이란 파격적인 조건의 든든학자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2009년 첫 지점을 개설한 미소금융은 2010년 말까지 1백5개 지점이 문을 열어 1만3천5백75명에게 무담보신용대출로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창업컨설팅을 해주며 저소득층의 자활을 도왔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은 2009년 14만6천 호, 2010년 18만4천 호가 공급됐다. 오는 2018년까지 중소형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총 1백50만 가구가 공급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뤄주게 된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증가 추세



주요 복지제도 도입 현황 및 시기

구분		한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
4대 보험	국민연금	1988년	1935년	1928년	1966년	1889년	1939년
	건강보험	1989년	1965년	1930년	1962년	1883년	1922년
	고용보험	1995년	1935년	1958년	1940년	1927년	1947년
	산재보험	1963년	1902년	1898년	1930년	1884년	1947년
기초생활보장제도		1996년	1974년	1988년	1964년	1861년	195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년	1965년	–	1962년	1995년	2000년

보름달 뒤로 달의 이면이 있듯이 복지의 뒤편으로는 재정이란 이면이 있다.

복지수요 증가와 복지지출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2007~2011년)간 연평균 복지지출 증가율은 8.9퍼센트로 우리나라의 총지출 증가율(5.6퍼센트)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28퍼센트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증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중산층의 몰락, 분배구조 악화와 무관하지 않으며, 홀로 사는 노인 등 1인 가구의 복지수요가 가장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분배와 빈곤문제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저성장과 경기침체'가 꼽히고 있다.

여기에 고령화도 복병이다. 만 65세 인구 비율인 고령화율은 2010년 현재 '한국 11퍼센트, OECD 평균 14.8퍼센트' 수준. 하지만 2050년에는 '한국 38.2퍼센트, OECD 평균 25.7퍼센트'로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을 추월할 전망이다. 고령화로 복지지출 증가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은 우리나라가 8.3퍼센트(2005년 기준)인 반면 ▲미국 15.9퍼센트 ▲프랑스 29.2퍼센트 ▲영국 21.1퍼센트 ▲일본 18.6퍼센트 등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2003~2008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4.7퍼센트로, OECD 평균(4.5퍼센트)의 3배가 넘는다.

이러한 상황에 굳이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지금의 복지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도 고령화,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인해 복지지출, 특히 공적연금 지출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2030년 미국 수준(GDP대비 15퍼센트) ▲2040년 일본 수준(18퍼센트) ▲2045년 OECD 평균 수준(20.6퍼센트) ▲2050년 21.6퍼센트로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저부담-저복지 지출'로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온 우리나라는 향후 국민부담 증가 또는 재정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만8천 달러였던 2006년을 기준으로 ▲국민부담률 25.7퍼센트(OECD 평균 36.8퍼센트) ▲공공사회복지지출 7.8퍼센트(OECD 평균 19.2퍼센트) ▲국가부채 27.9퍼센트(OECD 평균 54.7퍼센트) 등으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적게 내고 적게 받는' 나라였다.

한국조세연구원은 "현 복지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낮은 국민부담률 역시 현재 상태로 간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0년의 36.1퍼센트에서 2050년 1백15.6퍼센트로 '1백퍼센트 채무국'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OECD 평균의 2배 달하는 국방비도 '특수한 재정 부담'

이에 따라 한국조세연구원은 우리의 국가 채무를 2050년 60퍼센트 수준(EU 가이드라인)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민부담률을 ▲2010년 26.4퍼센트 ▲2035년 31.3퍼센트 ▲2045년 32.9퍼센트 ▲2050년 33.7퍼센트로 인상해야 한다고 권했다.

우리에게는 이 밖에도 '특수한 재정 부담'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방 지출은 GDP 대비 2.5퍼센트(2010년)로 OECD 평균의 2배에 이른다.

통일비용도 유사시 우리 재정이 감당해야 할 잠재적 '위험요소'로 꼽히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추정하는 남북한 통일비용은 GDP의 12퍼센트에 이른다(2008년 기준).

기존의 복지제도 유지만으로도 국가재정은 큰 짐을 지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2차례 개혁을 거친 국민연금과 부과체계 개선이 요구돼 온 건강보험도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 다른 조언도 남아 있다.

한국조세연구원 송호신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최신호(2011년 1월호)에서 "지속적인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병행되면서 세수확대 등이 자연스럽게 병행돼야 한다"며 재정건전화에 세입세출 못지않게 경제성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수와 경제성장 없이 재정건전화도 없고, 재정지출, 복지지출 확대도 어렵다는 말이다. 결국 복지란 넉넉한 곳간 가꾸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G

글·박경아 기자



로이터

그리스 전역이 정부의 재정긴축 조치에 반발해 총파업에 돌입했던 지난 2010년 5월 5일, 시위대가 수도 아테네의 국회 앞에서 폭동 진압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미국계 신용평가회사들의 신용등급 강등 조치로 남유럽 재정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리스 · 아르헨티나 · 베네수엘라 등
인기 좇으려다 국가 존립 흔들

포퓰리즘에 영합한 복지정책은 정부재원을 생산적 지출보다는 시혜적 현금보조 등 소비성 지출에 우선 배분해 성장잠재력을 저해한다. 복지정책은 일단 시행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제도 도입 · 확대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포퓰리즘에 편승하는 복지정책을 남발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재정악화로 인해 경제위기가 발생했다. 과다한 복지지출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던 유럽 국가들은 국가부도 위기에까지 직면했다.

그리스는 작년 재정적자가 GDP의 13.6퍼센트에 달했고, 국가부채가 3천억 유로(약 4백50조원)가 되면서 국가부도의 위기에 직면하자 1천1백억 유로(약 1백65조원)의 자금을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지원받아야만 했다.

그리스가 이 정도까지 된 것은 사회보장제도와 정치권의 포퓰리즘 때문으로 여겨진다. 작년 사회보장 관련 지출은 GDP 대비 18퍼센트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15.2퍼센트)보다 훨씬 높았다.

그리스는 연금수급 연령이 61세로 낮고 임금 대비 연금액 비율이 95.1퍼센트로 OECD 최고 수준이다. 공무원 연 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3.1퍼센트로 EU 평균(1.25퍼센트)의 2배 이상이다.

생산적 지출보다 시혜성 소비지출에 재정 우선 배분

그리스에서는 1980년대 초 사회당 정부 때부터 인기영합적 복지정책이 대거 도입되면서 비효율적인 재정구조가 고착화됐다. 공공부문의 높은 임금수준, 공기업 과다 보조, 유럽에서 가장 관대한 연금혜택 등 방만한 지출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금수급권 취득 근로연수의 경우도 그리스가 35년으로 프랑스(40년), 포

르투갈(40년), 영국(44년)보다 짧다.

'저성장의 덫'에 빠진 남미식 포퓰리즘도 만성적 재정적자와 정치사회 불안에 따른 극심한 경기침체를 초래했다.

1940년대 세계 4위 경제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1973년 페론 집권 이후 시혜적 복지 확대 등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경제위기가 반복됐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연금제도, 휴가·상여금 제도, 무료의료 혜택 등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또 기간산업 등 많은 산업을 보호정책하에 국유화하면서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초래하고 보조금 및 감세 혜택을 남발했다.

에바 페론은 "손을 벌리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푼다"고까지 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만성적 재정적자, 과도한 외채, 부실한 금융시스템으로 1982년, 2001년 등 경제위기가 반복됐다.

베네수엘라도 1998년 차베스 집권 이후 '오일머니'로 무료교육·의료정책 등을 추진해 재정상태가 급속히 악화됐다. 급진적이고 대중주의적인 정책들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일본도 퍼주기식 복지로 집권한 민주당 위기에 빠져

차베스 정부는 빈민가 식량지원 프로그램, 최저임금 인상, 무료교육·의료 프로그램, 대지주에 토지세 부과 등 분배우선의 팽창적 재정정책을 수행했다.

베네수엘라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정치·사회적 불안에 따른 경기위축, 재정악화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정 등으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했다. 2002년 세제개편 등 긴축적 재정정책을 통한 재정적자 감축을 시도했으나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무산됐다.

한편 일본도 퍼주기식 복지로 인해 국가재정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아동수당, 고속도로 무료화 등 무상복지 정책으로 집권했던 민주당 정부가 위기에 빠졌다. 연간 공적 지급액이 GDP의 10퍼센트를 초과해 50조 엔(약 6백75조원)을 넘어서는 등 일본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90년대 초 부동산버블 붕괴시 경기부양 명목으로 각종 선심성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가채무가 급증했다.

공공투자가 부실채권 처리나 IT산업 등 신산업에 투입되기보다 자민당 지지자인 건설·토목업계나 농민 등에게 지출됐기 때문이다. 1992~2000년 9차례 경기부양책을 실시했고, 공공사업 중심으로 1백23조 엔(약 1천6백6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자민당 정권의 리더십 부재와 인기영합적 미봉책 등으로 구조조정 시기를 놓쳐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됐다. 1992년 버블붕괴로 제2금융권 부실이 표면화되었음에도 대장성과 경제계의 반발로 미야자와 총리는 끝내 공적자금 투입방침을 철회했다.

이처럼 포퓰리즘은 세입범위를 초과하는 시혜적 복지정책을 통해

각국의 재정현황 비교

	공공사회 복지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그리스	20.5	-7.8	102.6
스페인	21.8	-4.1	47.0
이탈리아	25.0	-2.7	114.4
한국	8.3	3.3	26.8

· 2008년 기준 (단, 복지지출은 한국을 제외하고 2005년 기준). GDP대비, %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발생시키고 재정위기를 초래한다. 재정위기는 대외 신인도 약화, 환율절하 등을 통해 금융·경제위기로 전이되나,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개혁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포퓰리즘에 영합한 복지정책은 정부재원을 생산적 지출보다는 시혜적 현금보조 등 소비성 지출에 우선 배분해 성장잠재력을 저해한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는 석유 수입으로 얻은 돈을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보다는, 시혜적 복지와 같은 소비성 지출에 우선 배정했다. 한번 도입된 복지정책은 되돌리기 어렵고 대상이 더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재정의 적자구조를 고착화시킨다. 국채를 발행해 현 세대에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면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

복지정책은 일단 시행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제도 도입·확대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경제위기 이후 유럽 각국은 복지정책 축소를 추진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저항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국채발행 복지정책은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기

프랑스는 퇴직연령(60→62세)과 연금개시 연령(65→67세) 연장을 위한 연금개혁법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바 있다.

영국은 육아수당 축소와 등록금 인상에 대한 거센 반발을 맞았다. 2013년부터 연소득 4만4천 파운드 이상은 육아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등록금 상한선을 연 3천3백 파운드(약 5백80만원)에서 9천 파운드(약 1천5백80만원)로 올렸기 때문이다.

스페인은 실업수당(4백50유로·약 67만5천원) 폐지 및 연금지급액 동결, 출산장려금(2천5백유로·약 3백75만원) 폐지 등으로 노동계와 마찰을 빚었다.

선제적으로 과감한 복지개혁을 추진하는 경우는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스웨덴은 과도한 복지지출로 1991~1993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경제위기를 겪은 후 1990년대 복지분야 개혁을 추진했다. 또 독일은 1990년대 통일에 따른 경제침체 후 2002년 3월 사민당 슈뢰더 총리가 '어젠다2010'을 발표해서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연금개혁 등 복지를 축소했다. G

글·서일호 기자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지원

형평성 · 효율성 조화 '한국형 복지'로 간다

이명박 정부의 '맞춤형 복지'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지원하고,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욕구에 맞춰주는 것이다. 중복, 누락 없이 더 많은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한다.

#1 '행복나눔 N 캠페인'은 소비자가 N 마크가 붙은 기업의 제품을 사면 매출액의 약 1%를 기금으로 적립, 사회에 기부하는 캠페인으로 지난해 1월 1차 협약식을 시작으로 12월 2차 협약체결까지 모두 2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2차 협약식에는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 쌍방울트라이그룹, 코레일유통, 혜인식품(네네치킨), 여원미디어, 에프앤케이 등 7개 기업이 자사 제품에 마크를 부착하는 행사에 직접 참여했다.

#2 SK미소금융이 대출 업무를 시작한 이후 1년 만인 지난해 12월 1000번째 대출자가 나왔다. 1000번째 대출자는 광명시장에서 8년째 신발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로 물품 구입 등 가게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광명시장에서 여러 차례 운영되던 SK미소금융의 이동상담소가 저희 신발가게에서 3분 거리에 생겨 방문하게 됐다"며 "막상 은행 문을 두드리기에는 여건이 부족한 저 같은 사람에게 미소금융은 희망을 주는 고마운 제도"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은 한마디로 성장과 복지가 함께하는 '한국형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은 '튼실한 사회안전망 구축', '계층 상승과 경제 자립 지원', '실효성 있는 복지행정 시스템 구축',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국가 · 사회 · 개인이 함께하는 복지'다.

정부에서는 '한국형 복지'를 위한 다섯 가지 방향도 정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자립 · 자활의 복지',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충분히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사회와 지역이 함께하는 '공동체 복지', 중복 · 낭비가 없는 '효율적인 복지'가 바로 그것이다.

먼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견실한 성장으로 최고의 복지수단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고용 · 복지 · 교육을 연계하는 적극적 통합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조선DB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나들가게를 찾았다. 나들가게는 골목상권에 진출한 대형 유통업체에 맞서 정부지원으로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복지' 중 하나다.

글로벌 경제 위기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극복하고, 2010년 6.1퍼센트의 성장률을 달성함으로써 고용창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운영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2010년도 취업자가 전년대비 32만명이 증가하고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

정부, '한국형 복지' 위한 다섯 가지 방향 정해 마련

두번째로 '자립·자활의 복지'는 미소금융, 든든학자금 등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한국형 복지사업을 개발해 도입하는 것이다. 일단 근로능력자와 무능력자의 특성에 맞게 공적부조 제도를 재설계한다.

근로능력자에게는 '일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하고, 근로무능력자는 엄격한 심사로 선정해서 현행과 같이 최저생계를 보장해 주는 수준으로 지원한다. 기초수급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키움통장'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2010년 1만 가구에서 올해 1만5천 가구로 확대된다. 기초수급자가 탈수급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 교육급여를 2년간 지속해서 준다.

고용부의 취업프로그램 및 희망리본프로젝트에는 4만1천명이 참여했고, 자활공동체 등을 통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에는 5천명이 참가했다. 자활공동체는 2010년 1천2백 개였는데 올해 1천4백 개로 늘고 2012년에는 1천7백 개가 될 전망이다.

자활근로사업에는 2만4천명이 참여했다. 자활사업단은 2010년 2천7백 개였고, 올해는 3천 개로 늘어난다. 2012년에는 3천5백 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소금융, 든든학자금을 위해 작년에 미소금융 1백5개 지점을 설치, 1만3천5백75명에게 1천61억원을 대출해 줬다. 든든학자금은 23만3천명에게 8천4백69억원을 빌려줬다.

세번째로 '맞춤형 복지'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지원하고,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욕구에 맞춰 주는 것이다. 중복, 누락 없이 더 많은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한다.

정부는 2010년 1월부터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을 시작했다.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의 틀도 구축했다.

2010년 7월에는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26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월 9만~1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맞벌이가구에는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시 부부 합산 소득의



조선DB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문을 연 미소금융 100호점 노원지점에서의 상담 장면.

25퍼센트를 차감해서 계산해 주고,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을 확대해 준다. 작년에는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2인 초과는 1백만원을 추가 소득공제해 줬고, 올해는 각각 1백만원, 2백만원으로 늘렸다.

네번째로 '공동체 복지'는 정부 중심의 복지에서 벗어나 나눔문화 활성화 등을 통해 공공·민간이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나눔, 자원봉사 확산을 통해 국민들이 서로 신뢰하는 따뜻한 공동체와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틀 구축

정부는 2010년 11월부터 국민들의 나눔,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나눔포털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행복나눔 N 캠페인'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확대 및 나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다. 행복나눔 캠페인 참여 기업은 2010년 21개에서 올해 50개로 늘어난다.

사회지도층과 소외계층을 연결하는 휴먼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사회지도층이 솔선하여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또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위해서 의료, 교육, 문화 등의 인력들로 구성된 '전문 1004 지역사회봉사단'을 운영한다.

다섯번째로 중복, 낭비가 없도록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복지'를 구현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사, 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 내 복지사업을 통합 정비하고 있으며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및 중복,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 등 복지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오고 있다.

또한 중앙, 지방 및 민간 복지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한다. 범정부 복지정보연계 확대 등 복지급여, 복지서비스의 자격 및 이력정보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G

글·서일호 기자

듣기에 달콤한 무상복지의 허구

당장 시급한 서민, 꼭 필요한 곳에 우선해야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그리고 반값 등록금. 언뜻 달콤하게 들리지만 그 이면이 궁금하다. 진짜 무상인가, 나중에 그 값을 치르는 것은 아닌가, 나중에 치르기 때문에 이자까지 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국가 재정은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다. 당장 입에 달기는 하나 뒷맛이 두고두고 쓴 선택을 유혹하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조선DB

우리 후손들에게는 복지와 재정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송파구 유아 건강달리기 대회.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30센트짜리 아침밥'이 논란이라고 한다. 30센트라면 우리 돈으로 3백40원 정도다.

외신에 따르면 1월 넷째주 열린 콜로라도 주의회 합동예산위원회에서 저소득층 공립학교에 학생들의 무료 아침식사를 지원하는 주정부 예산안(12만4천 달러)을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다고 한다.

공화당 위원 3명이 반대, 민주당 위원 3명이 찬성한 결과다. 공화당 위원들은 예상적자 때문에 무상급식에 반대했다고 한다. 그 결과 저소득층 학부모들은 오는 3월부터 자녀들의 아침식사 한 끼당 30센트(약 3백40원)씩을 지불하게 됐다.

알고 보니 속사정은 우리와 딴판인 것이다.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4만7천 달러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5천 달러다.

우리보다 두 배는 부자인 미국에서 벌어지는 30센트짜리 아침밥 논란이 쪼쪼한 것인지,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는 주장이 통 큰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선 '30센트짜리 아침밥'도 주의회서 무상 반대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무상복지 시리즈의 주요 내용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그리고 반값 등록금이다.

'무상급식'은 전국 초중학생 5백27만명에 대해 무상으로 점심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무상의료'란 입원비의 90퍼센트까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본인부담액도 1백만원(현 2백만~4백만원)으로 낮춰 2015년까지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무상보육'은 전 아동(0~5세)을 대상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비 전액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반값 등록금'은 향후 5년간 단계적인 장학금 확충, 등록금 추가인상 억제, 든든학자금 금리 인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현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지', 아니면 '빛 좋은 개살구'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무상급식 등 4개 정책에 매년 16조4천억원 소요

일단 우리나라 재정 형편으로 가능할까. 무상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반값 등록금 실현에 매년 추가로 16조4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관련 부처는 실제로 최대 50조원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한 해 동안 걷는 부가가치세 세입 규모(2010년 49조5천억원)를 넘는 엄청난 규모다. 이렇게 무상복지를 확대하고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율을 지금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올려야 한다.

이러한 무상복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을 모델로 삼고 있으나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는 재정 여건이 상이하다.

국민부담률을 가능한 낮게 유지하면서 복지지출을 확대해 온 우리나라가 갑자기 '저부담'은 두고 복지지출만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국가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무상복지를 실현하려면 국민부담률을 현행 25.6퍼센트(2009년)에서 30.26퍼센트로 인상해야 한다. 복지용 국채 발행도 결국 짐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이미 복지지출이 많은 국가들은 국가채무도 많다. 이들 국가들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국의 공공복지지출과 국가채무·국민부담률 GDP 대비 %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	OECD 평균
국민부담률 2008년	46.3	48.2	43.2	35.7	28.1	26.5	34.8
국가채무 2009년	51.9	51.8	87.1	72.4	192.8	32.6	90.6
공공복지 지출 2007년	27.3	26.1	28.4	20.5	18.7	7.5	19.3

· 2010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 한국은 2009년 결산치 기준.

오히려 무상복지 확대는 공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불필요한 수요를 낳고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

예컨대 2006년 여섯 살 미만 영유아 병원 입원비를 무상으로 한 적이 있으나 입원환자가 급증하고 이를 위한 재정부담이 39퍼센트나 증가한 경우가 있다.

소득과 무관하게 복지혜택을 주게 되면 복지의 손길이 절실한 빈곤층에 돌아갈 혜택이 축소될 우려도 있다. 저소득층 서민복지 재원이 축소되거나 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의 우선순위에서도 문제가 있다. 벌써 '굳이 무상급식이 우선이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전면실시돼도 저소득층은 이미 혜택을 보고 있어 추가혜택이 거의 없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학부모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정책 설문조사에서 학부모들은 교육투자의 우선순위를 ▲학교 안전(31.7퍼센트) ▲사교육 줄이기(19.9퍼센트) ▲학교시설 개선(13.9퍼센트) ▲친환경 무상급식(13.6퍼센트) 순으로 꼽았다.

정부는 최근의 무상복지 논쟁과 관련해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민간연구기관 등과 합동으로 건전재정 유지에 힘쓰면서 우리 여건에 맞는 복지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무상복지 대안들도 이미 마련돼 있다. 오는 2012년까지 저소득층 자녀와 농산어촌 학생의 30퍼센트까지 무상급식을 받게 할 계획이다. 무상의료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과 의료지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빈곤·취약계층 단계적 지원할 무상복지 정부대안 이미 존재

무상보육과 관련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인프라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보육시설과 유치원 미이용학생에 대한 양육수당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반값 등록금의 경우 대학재정의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대학의 재원 다양화를 지원한다.

지난 1월 19일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복지·고용 재정정책포럼에서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복지정책의 평가와 성공조건'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세금은 줄이고 예산은 늘리겠다는 말은 국민의 환심 사기에 불과한 재정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복지정책은 빈곤·취약계층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우선순위, 재원조달, 전달체계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며 "인기영합주의를 지양하고 일자리 중심, 시장친화적,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펴야 하며 교육·노동·복지 정책이 하나의 틀로 융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G

글·박경아 기자

저탄소 생활실천 그린에너지패밀리



온(溫)맵시로 따뜻하게

실내온도 18℃

올 겨울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낼
8가지 에너지절약 비법을 공개합니다

내복입기로 체온은 올리고 난방비는 줄이세요

1℃의 비밀, 난방비 절약

실내온도 1℃를 낮추면 난방비 7%가 절약됩니다.
내복을 입고 난방온도를 3℃ 낮추면 난방비를
약 20%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건강온도의 비밀, 18℃

"겨울철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크면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므로 실내온도를 20℃~18℃로 설정해
약간 서늘한 느낌이 들도록 유지합니다."

– 유병연 교수(건양대학교 가정의학과)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그린에너지패밀리(www.gogef.kr)
생활전반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녹색생활실천 운동



열정을 지닌 그대!
오라! 일자리가 여기있다

일하고 싶다 한다. 탱탱한 젊음이 구들장 지고, 하릴 없이 PC방 기웃거리기 부끄럽다 한다.
좀 더 일하고 싶다 한다. 날 보는 어린 눈에 가득한 꿈을 지켜주고 싶다 한다.
경제 회복의 결실은 누구나 느껴야 한다. 그 결실을 느끼는 곳이 일자리여야 한다.
이러한 생각들이 모여 공공과 민간 부문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열정적인 그대들의 젊음을 불태울, 눈처럼 쌓인 당신들의 경험을 풀어낼
그런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공공·민간 함께 올해도 취업 훈풍 '쌍끌이'

일자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회복과 성장의 결실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일자리 문제는 지구촌 공통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불었던 취업 훈풍이 올해에도 이어져 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고, 일을 통해 함께 잘사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을 필두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사회지도층'이란 단어마저 단숨에 유행어로 만든 '시크릿가든' 같은 판타지 드라마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드라마나 영화는 세상을 반영하는 창이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가운데 '방가방가'와 '내 깡패 같은 애인'은 바로 청년들의 눈물겨운 '백수탈출' 노력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다.

매번 면접에서 낙방하는 청년 방태식이 동남아인으로 오해받는 외모를 이용해 부탄인 '방가'로 변신해 중소기업에 취직한 이후 우여곡절을 겪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방가방가'다.

'내 깡패 같은 애인'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지방대 출신의 20대 여성 한세진이 반지하방에서 살며 좌충우돌하는 취업 도전이 배경이다. 영화화될 만큼 취업이 절실한 것은 우리 경제가 겪어 온 시련과 무관하지 않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의 고난 끝에 우리 경제는 지난해 6.1퍼센트의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2002년 7.2퍼센트의 경제성장 이후 8년 만의 최고 경제성장이다.

설비투자와 수출이 각각 24.5퍼센트, 14.1퍼센트로 성장한 것이 가장 큰 버팀목이 됐다. 지난해 수출은 4천6백74억 달러를 기록했다. 2009년 대비 28.6퍼센트 증가한 것이며 세계 7위의 규모다. 이러한 경제회복과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눠야 할 사람들이 바로 영화에서 보이는 구직자들이다.

지난해 취업과 32만명 증가 – 민간부문 고용 호전 뚜렷

고용사정도 확실히 호전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는 2천3백82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32만3천명이 늘었다. 이는 2004년 41만8천명 증가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인 '25만명+α'를 웃돈다. 2009년에는 취업자 수가 7만2천명 줄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백27만6천명 감소)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더욱 반가운 것은 공공부문보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 취업이 늘어난 점이다. 지난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된 '희망근로' 등이 줄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 취업자는 7만2천명 감소했으나 민간부문에서 39만5천명이 증가해 지난해 총 취업자 수는 32만3천명이 늘어난 것이다.

양적인 회복과 함께 고용구조도 개선되는 추세다. 상용직 중심으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직은 전년과 비교해 ▲2008년 38만7천명 ▲2009년 38만3천명 ▲2010년 69만7천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전년 대비 ▲2008년 15만명 ▲2009년 13만6천명 ▲2010년 18만9천명 감소로 이어졌다. 자영업자 숫자 역시 전년과 비교해 ▲2008년 7만9천명 ▲2009년 25만9천명 ▲2010년 11만8천명 감소를 보였다.

제조업 중심으로 민간부문 취업자 수 많이 늘어

통계청 은순현 고용통계과장은 지난해 취업자 동향에 대해 "2010년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4퍼센트 증가했고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퍼센트, 여자는 1.5퍼센트 늘었다"며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청년층 구직난이 여전히 과제인 셈이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은 58.7퍼센트로 전년대비 0.1퍼센트 포인트 상승했으나 60세 이상(0.7퍼센트 포인트 감소)과 더불어 20대는 상승에서 예외였다. 20대 고용률은 2년 연속 58.2퍼센트로 경제위기 발생 이전인 2008년의 59.1퍼센트를 회복하지 못했다.

올해에도 고용 훈풍이 이어져 올 취업자 수는 28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성장도 이어져 수출과 수입을 더한 무역수지가 1조원대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성장의 결실을 좀 더 많은 구직자들이 나눌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기'를 목표로 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와 '세대간 상생형 일자리 함께하기' 등 근무형태의 다양화 ▲청년 일자리 '7만1천+' 창출을 목표로 한 청년 '내 일' 만들기 ▲민간 주도의 사회적 기업 확산 ▲일자리창출협의회 신설 등 일자리 정책 운영 틀 정착 등 4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도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

조선DB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 2010 공공기관 채용 정보 박람회. 공공기관 취업 희망자들이 상담을 위해 줄지어 서 있다.

해 공공기관의 경영성적을 평가하는 데 있어 사회공헌 지표를 신설해 일자리 창출 노력과 부채비율을 핵심 사항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1월 18일 이명박 대통령도 1년2개월 만에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 "공공기관이 사회적 소외 계층의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유연근로제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 사례들을 경청했다.

사회공헌 지표 신설해 공공기관 경영성적 평가키로

정부가 지난해 10월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다방면에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일자리 만들기가 취업확대의 불을 지펴 민간기업이 바통을 이어 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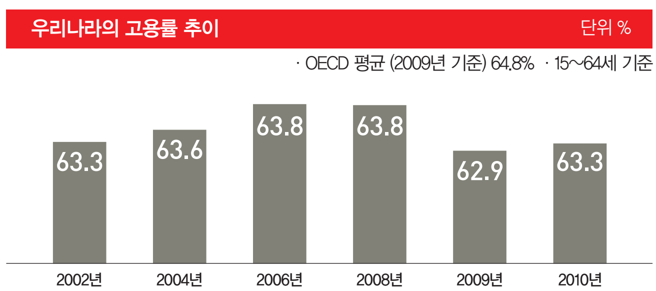
'위기극복은 공공부문이 이끌고 성장은 민간부문이 맡는다'는 개념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결성된 G20 정상회의에서도 선보인 바 있다. 정부가 지향하는 '일을 통해 함께 잘사는 공정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사회적 책임과 노력이 함께 필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을 독려한 데 이어 1월 24일 30대 그룹 총수들과의 간담회, 1월 26일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공공기관 일자리는 앞으로 일자리 이상의 의미도 갖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이 고임금의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이유로 청년들에게 선호됐지만 앞으로는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창의적인 일자리로 변화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84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최초의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201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발표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개회사 한 토막이다. 이 개회사는 공공기관 일자리의 새로운 비전을 담고 있었다. '일자리 이상의 비전과 창의성을 가진 일터'는 앞으로 공공기관 일자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일 것이다. G

글·박경아 기자



한국도로공사 '일자리 나눔' 앞장

사회적 약자에 채용 길 넓혔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톨게이트 직원의 수납직원은 7천4백17명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이 2010년 말 현재 1천6백37명이다. 장애인 고용비율이 22퍼센트에 이르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새터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아마비 장애로 걷는 것이 불편한 임모(여)씨. 그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 늘 부끄러웠다. 일반인들과 같은 사회생활은 아예 꿈조차 꾸지 않았다. 절망했고 세상을 원망했다.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둬 놓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20대 중반까지 그런 암울한 생활은 지속됐다.

그에게 빛이 찾아온 때는 2001년. 그해 9월 그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추천으로 한국도로공사 청주영업소 통행료 징수원이 됐다. 톨게이트 근무를 하게 된 것이다. 당시 그와 함께 청주영업소 직원이 된 장애인은 임씨와 같은 지체장애인이 5명, 청각장애인 1명 등 총 7명이었다. 청주영업소 전체 통행료 징수원 17명의 41퍼센트를 장애인이 차지한 것이다.

일자리는 구했지만 수많은 차량이 오가는 톨게이트 좁은 부스 안에서 8시간씩 근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참았다. 다른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참아야 했다. 다른 일반 직원들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노력했다.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처음에는 성실함을, 그 다음에는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들 가운데서 친절우수직원이 나왔고 모범직원이 나왔다.

이들의 노력은 정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면서 한껏 빛을 발하고 있다. 전국 톨게이트에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톨게이트 장애인 직원 비율 26퍼센트까지 확대

2008년 4월 21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톨게이트 운영업체들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했다. 통행료 수납업무의 경우 앉아서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들도 큰 불편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임씨 등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 입증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조선DB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톨게이트에 근무하는 수납직원 가운데 장애니 비율을 26퍼센트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사진은 도로공사 직원들이 설 귀향길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

고용증진 협약 체결의 결과물이 나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해 6월 2일 정읍톨게이트에서 열린 장애인취업박람회에서 10명의 장애인이 채용된 것이다. 근무환경도 주 5일 근무제로 바뀌면서 여성장애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후 톨게이트 장애인 직원 채용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톨게이트 근무 장애인 인력은 2010년 말 현재 1천6백37명이다. 2007년 3백97명에서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국 톨게이트에 근무하는 수납직원 7천4백17명의 22퍼센트가 장애인인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이런 일자리 나눔으로 연간 2백75억원의 생계자금이 지원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직원 채용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나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이 한국도로공사(사장 류철호)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기초생활 수급자와 실직자, 저소득 여성가장 등 소외계층 1천5백여 명을 채용해 '깨끗한 고속도로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다. 이들 1천5백여 명은 고속도로 법면(경사면)과 교량 하부, 나들목과 분기점 인근 등 비교적 위험하지 않은 지역에서 쓰레기 수거 및 배수로 토사제거 등의 일을 맡아 처리했다.

이들 소외계층 채용자는 한국도로공사 전국 43개 지사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1인당 월 1백20만원 내외의 급여가 제공됐다.

한국도로공사는 2009년에도 총 25억원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1천2백명이 넘는 소외계층을 채용해 일자리를 나눈 바 있다.

소외계층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와 함께 올해는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조기에 인턴을 채용한다. 청년인턴 채용 목표 1백63명의 68퍼센트 수준인 1백11명을 1분기 내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양영주 차장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안전하고 쾌적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등 고속도로 기능도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정책 기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전환했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아직 사회적 약자에 대해 냉담한 편"이라면서 "정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나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고용 과정에서 장애인 인력풀 부족 등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 인력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약체결 및 채용박람회 적극 참여를 통해 우수 장애인 인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간혹 불친절로 인한 고객과의 마찰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1 대 1 맞춤식 반복교육으로 전 직원을 서비스 매니저화해 나간다는 복안을 갖고 실천하는 중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인들의 업무 부적응에 따른 잦은 퇴사다.



도로공사

도로공사 직원들이 헌혈행사를 마친 후 밝게 웃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장애 유형에 따른 업무 배치로 근무 만족도 향상을 꾀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런 문제점 해결을 통해 현재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22퍼센트에서 26퍼센트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나눔은 장애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새터민(탈북자) 등 다른 유형의 소외계층에 대한 채용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외주업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청년 취업난 해소 위해 청년인턴 조기 채용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는 일자리 나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장학금 지급, 헌혈, 희귀난치병 치료사업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에는 부모 또는 본인의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대학생 등 2백91명에게 '하이패스 장학금' 5억1천만원을 지급했다.

한국도로공사는 1996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1998년부터 장학금 지급을 시작한 이후 13년 동안 지급된 장학금은 48억5천만원이다. 3천1백97명의 청소년이 혜택을 받았다.

지난 2008년 10월 공기업 최초로 헌혈뱅크를 구축해 공사 전 직원의 헌혈을 통해 기증받은 헌혈증을 은행식으로 적립, 운영하며 개인 및 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고 있다. 2009년 11월에는 희귀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헌혈증서 1천 장을 기증했고, 지난해에는 휴게소에서 헌혈증서를 수집해 백혈병 어린이들에게 지원하기도 했다.

한국도로공사 양영주 차장은 "앞으로 톨게이트 근무 장애인 고용비율을 전 직원의 26퍼센트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우리 공사는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나눔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선도하는 공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 · 김성동 기자


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류철호 사장

"사회적 약자 고용 30퍼센트까지 늘리겠다"

도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도로공사 류철호 사장은 "사회적 약자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국내 유일의 도로 전문 공기업이다. 전국 고속도로 31개 노선의 3천5백79킬로미터를 관리하고 있다. 직원만 4천2백10명에 달한다. 지난해 통행료 수익만 전년 대비 4.4퍼센트 늘어난 2조9천5백억원을 올렸다. 매출규모, 직원 수에서 적지 않은 규모의 공기업이다.

이 공기업을 이끌고 있는 이가 류철호 사장이다.

류 사장은 2008년 6월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한 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정책에 발맞춰 경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 개편 및 인력조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류 사장이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정책과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자리 나눔사업이다. 류 사장의 일자리 나눔사업은 지난 1월 28일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일자리가 진정한 희망

류 사장은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우리 공사의 약자를 위한 일자리 나눔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기쁘다"면서 "그동안 장애인 고용 운용방안을 제시해 장애인, 톨게이트 운영업체와 나눔, 상생, 동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점이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장애인, 모자가정, 고령자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 고용비율을 30퍼센트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약자 중 장애인 채용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류 사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그간 공기업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 사장은 정부의 정책 목표 중 하나인 동반성장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여성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년 대비 10퍼센트 이상 구매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휴게소 내에는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을 운영해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생각입니다."

그는 또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사업 등의 사회공헌을 위해서 교통사고 환자를 위한 간병도우미 지원 확대, 수혜대상자 및 지급 금액 확대를 통한 장학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사회 구현도 그의 주요 관심사다. 류 사장은 "공정사회 정착을 위해 청년인턴 조기채용과 함께 타임오프제 조기 도입을 노조와 합의해 노사관계의 선진화도 이끌어낼 것"이라면서 "지문인식전자입찰시스템 등을 도입해 투명한 계약 및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류 사장은 "조직과 인력이 최고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영을 개선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의 선진화'의 핵심은 바로 공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막히지 않는 빠른 고속도로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류 사장은 신공항고속도로 등 주요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직접 참여하고 경수(서울~용인)고속도로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고속도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G

글·김성동 기자



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주재 사장

"잘 적응하고 능력 발휘토록 배려 또 배려"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주재 사장은 "지방대 출신자,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자녀 등에 대한 상시점검 및 피드백을 통해 이들이 회사 업무에 잘 적응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경영진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4년 3월에 설립된 금융공기업이다. 서민들에게 주택마련자금을 낮은 이자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무주택 서민들이 전세금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를 원할 때 손쉽고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 주는 기업이다. 지난해 전세자금 보증 공급실적은 5조7천7백억원으로 2009년의 4조6천8백억원보다 23퍼센트 이상 늘어났다. 이 금융공기업의 수장이 임주재 사장이다.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의 핵심은 2012년까지 조직과 인력의 10퍼센트 이상을 감축하는 것이다. 임 사장은 2008년 7월 취임 이후 공공기관 선진화를 강력하게 추진, 이미 지난 2009년에 조기 완료한 상태다.

서민을 위한 금융공기업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여성,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채용 확대 노력은 지난 1월 28일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모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임 사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도 중요하지만 채용 이후의 관리도 중요하다"면서 "현재 우리 공사에서는 육아휴직제도, 출산휴가, 유연근무제와 같은 여성친화적인 제도들이 잘 정비돼 있어 삶과 일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여직원들이 실제 이런 제도를 이용할 때 심적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대 출신자,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자녀 등에 대한 상시점검 및 피드백을 통해 이들이 회사 업무에 잘 적응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경영진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 사장이 최근 들어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성과중심의 생산적·창의적 근무환경 조성이다. 이를 위해 임 사장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유연근무제다. 유연근무제란 근무시간, 장소, 형태 등을 다양화한 제도다. 이 제도를 가장 반기는 직원들은 여성이라고 한다.

지난해 말 유연근무제 도입… 여직원들 높은 선호도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 10월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직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65% 이상의 직원들이 찬성을 했는데 특히 시간제 근무 및 재택·원격 근무의 경우 육아부담이 큰 젊은 여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도 유연근무제가 유용한 제도라는 게 나타난 것이죠."

임 사장은 "젊은 여직원들의 높은 호응에서 알 수 있듯이 유연근무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 제도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가족친화 경영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사장은 서민을 위한 금융공기업의 수장답게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나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이 1차적 목표"라고 말했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공급 확대 등과 더불어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비용경감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임 사장은 1979년에 한국은행에 입행했으며,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신용감독국장과 기획조정국장, 부원장보를 역임한 금융전문가이다. G

글·김성동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외계층 채용기회 확대

장애인·지방대 출신·여성에 우선권

전형단계별 10퍼센트 가산점이 부여되면서 2008년 2.7퍼센트 수준이던 장애인 직원비율이 지난해에는 3.6퍼센트로 높아졌다. 지방대 출신들의 합격률은 2008년 20퍼센트에서 지난해에는 40퍼센트로 상승했다. 여성 채용목표 할당제가 도입되면서 전체 직원 중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15.1퍼센트에서 지난해 말에는 19.1퍼센트로 증가했다.

〈저는 지방대를 졸업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기업들이 지방대 출신 구직 희망자들을 기피하는 경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지방대 출신들은 취업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채용인원 중 지방대 출신에 40퍼센트를 할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의지와 역량과 열정만 있다면 저 같은 지방대 출신도 취업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응시를 했고 합격했습니다. 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러한 제도가 공기업은 물론 사기업에도 널리 전파돼 지방 출신 인재들이 더 이상 취업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에 신규 임용된 신입직원 가운데 한 지방대 출신 여직원의 취업 관련 소감문이다.

지난해 지방대 출신 채용비율 40퍼센트로 높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년도에 지방대 출신 채용을 20퍼센트 이상으로 하는 지방대 의무채용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지방대 출신 채용비율을 40퍼센트로 확대했다. 지방대 출신 채용비율을 40퍼센트로 확대하면서 지방대 출신 인재들이 대거 몰렸다.

채용비율 20퍼센트였던 2009년 4월 신입사원 모집에는 지방대 출신 경쟁률이 34.7대 1이었던 것이 지난해 9월에는 68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방대 출신들의 합격 비중도 높아졌다. 2008년 20퍼센트였던 신규채용자 중 지방대 출신 비율이 지난해에는 40퍼센트로 상승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기회 확대 노력은 지방대 출신뿐만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에게도 적용된다.

역시 지난해 9월 입사한 여직원의 입사 소감문이다.

〈제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다른 기업들보다 한걸음 앞선 여성들을 위한 각종 제도와 문화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제도 등 출산이나 육아 등의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도 이를 수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들이 저 같은 여성 구직자들이 대거 지원하게 된 배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연말에 도입된 시간제 근무 및 재택·원격 근무제도 등도 앞으로 육아 등의 시간적·심적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여성채용 목표 할당제를 도입, 여성인력의



'따뜻한 한반도·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에 참여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들.

사회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2007년에는 여성채용 의무비율제를 도입했고 2009년에는 여성 면접관 비율 할당제를 도입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2010년 9월 신규채용에서는 서류전형 지원자 중 여성비율이 43퍼센트를 차지했다. 신규 채용자 중 여성비율은 2008년 35.8퍼센트에서 지난해에는 절반 가까운 46.7퍼센트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경영기획실 등 주요 부서의 여성인력 배치비율은 34.5퍼센트에서 45.8퍼센트로 상승했다. 전체 직원 중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15.1퍼센트에서 지난해 말에는 19.1퍼센트로 증가했다.

장애인에 가산점… 청년인턴 20명 정규직 전환

'근무시간 선택제', '시차 출퇴근제', '반일휴가제' 등도 여성들에게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들이다. 임신, 육아 등 여직원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순환근무제와 담당 업무 등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조선DB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채용에도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장애인에 대해 전형단계별로 10퍼센트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서류전형 시 10퍼센트 가산점을 준 후 합격한 장애인에게는 필기시험에서 다시 10퍼센트의 가산점을 준다. 그런 방식으로 실무자 면접, 임원 면접 등 전형단계마다 10퍼센트의 가산점을 주는 것이다.

그 결과 2008년 2.7퍼센트 수준이던 장애인 직원비율이 지난해에는 3.6퍼센트로 높아졌다. 특히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복합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채용 시 배려한 결과 장애인 직원 중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같은 기간 6.7퍼센트에서 15.8퍼센트로 증가했다.

전형단계별 10퍼센트 가산점 부여제도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채용 시 우대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진 이중언어 구사능력과 문화적 다양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오미영 파트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곤란이나 사회문화적 차이 등의 이유로 소외를 받고 있는 국민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이로 인해 소위 '스펙'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취업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게 현실"이라면서 "주택금융공사는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지와 역량을 가진 사람들에게 균등한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기회 확대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적극 부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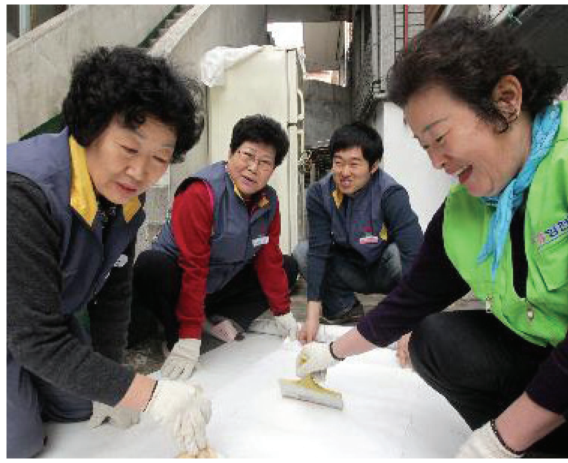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공사 직원의 26.9퍼센트를 신규채용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 20명을 포함해 총 1백4명의 직원을 새롭게 뽑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인턴 20명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2009년 4월에 채용됐던 인턴들이다. 지난해에도 3월 11명, 8월 13명, 9월 15명 등 총 39명의 청년인턴을 신규로 채용했다.

청년일자리와 함께 중장년층과 고령층 일자리도 창출했다. 유동화 및 보증업무 사후관리에 26명을 신규로 채용해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늘렸다. 만 53세 이상 퇴직 금융전문 인력도 14명을 채용해 고령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최석 경영기획팀장은 "우리 공사는 올해도 국정과제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다른 기관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G

글 · 김성동 기자

공공부문 일자리 55만5천개 70퍼센트는 취약계층에게



정부는 올해 전체 고용정책 예산 8조8천억원 중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위해 2조5천억원을 투입, 55만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사회 전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인센티브 및 실업급여 부문의 지원을 대폭 보강하고 확대한다.

정부가 올해 공공부문에서 55만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박재완 장관은 지난 1월 12일 "고용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해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운영 기조를 뒷받침하고 각 부처와 자치단체의 고용정책에 대한 조정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고용정책조정회의'는 각 부처와 지자체로 흩어진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협의 채널이다. 고용정책조정회의는 고용부 장관 주재로 재정부·교과부·행안부 등 8개 부처 차관,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 16개 광역단체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1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올해 정부의 전체 고용정책 예산 8조8천억원 중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위해 2조5천억원을 투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직접 일자리란 민간부문에서 취업이 어려운 청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역공동체 일자리(희망근로), 숲 가꾸기, 장애인과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기타 여성 일자리 등을 말한다.

중앙부처·지자체 협의채널 '고용정책조정회의' 신설

정부가 올해 재정지출을 통해 만들 일자리 55만5천 개 중 70퍼센트 정도인 39만 개는 다시 탈북자, 여성가장, 중증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등의 취업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은 경기 활성화 여부에 따라 그 규모가 해마다 조금씩 조정되고 있다. 올해는 경기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희망근로 사업(지역공동체 일자리)은 작년보다 축소(10만→4만명)한 반면, 청년인턴 인원은 좀 더 늘렸다(3만→3만3천명). 청년층의 고용 여건은 경기 회복에도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화재해설사, 자연환경 지킴이 등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18만6천→20만명)했으며, 행정 도우미, 도서관 사서보조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도 확대(7천→1만명)한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은 2010년의 58만명보다 3만명 정도 줄어든 것이지만, 경기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 공공근로 사업을 제외할 경우 전체 지원인원은 2010년의 48만명에서 올해 52만명으로 확대된 것이다.

청년층의 구인·구직 불일치 해소 중점 지원

이날 회의에서 박재완 장관은 "일자리 창출이 국정 최우선 과제인 만큼 부처 간 칸막이나 중앙·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고용정책조정회의가 일자리 정책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정부에서 책정한 전체 고용정책 예산 8조8천억원 가운데 직접 일자리 창출 지원 부문(2조5천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간접 일자리 지원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의 간접 일자리 창출 지원은 크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인센티브 및 실업급여 부문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 가운데 첫번째인 직업능력개발훈련 부문은 작년보다 2.4퍼센트 정도 감소한 규모인 1조1천2백41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올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부문의 예산 감소는 경기 회복을 반영한 것이지만,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지원대상도 실업자뿐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 등으로 확대(약 1천9백억→3천억원)했다는 특징이 있다.







조선DB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직·간접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의 한 홀몸노인 집에서 벽지 작업을 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들(왼쪽).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0 잡월드 우수 일자리 로드쇼'의 모습(가운데). 구직과 창업 희망자에게 1대 1 종합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일자리 플러스센터'의 모습(오른쪽).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구직자가 2백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부 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총 훈련비의 80퍼센트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제도로 지원 범위 안에서 구직자가 직접 자기에게 맞는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훈련 사업을 통합하여 일괄적인 홍보와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청년층에 대한 직업 훈련도 대폭 확대(8천→1만4천명)하고 위기 청소년을 위한 '취업 사관학교'를 신설하여 직업훈련(1년 무상) 및 자립수당(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두번째인 고용서비스 부문은 1)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2)청년층의 구인·구직 미스매치(불일치) 해소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위해서는 우선 저소득층·청년·고령자에게 훈련–단기 일자리–취업알선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2010년 3만1천명에서 올해는 5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건설·간병·파출부 등의 일용근로자들에게 무료로 직업을 알선하는 취업지원센터를 2010년 9개소에서 올해는 30개소로 확대한다.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위해서는 '새로 일하기 센터'를 확대설치(77→90개소)하여 직업상담, 동행면접, 인턴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휴 간호인력 재취업 지원을 위해 전국 16개 간호협회를 통해 구인·구직알선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청년층을 위한 구인·구직의 미스매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년취업아카데미'가 시험적으로 시행된다. 전국 40개 대학 약 8천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될 청년취업아카데미는 대학과 대기업의 협력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맞춤형 취업교육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이다.

정부의 간접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세번째인 고용장려금 부문은 단기 채용이나 일자리 나누기 등을 실시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육아 휴직급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일자리 나누기나 유망업종 창업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는 일자리 창출 1인당 연간 7백20만~1천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창출 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급여 평균 임금의 40퍼센트로 확대

아울러 임금피크제(일정 나이가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2010년 95억원에서 2011년 1백25억원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근로자의 생계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종전에 월 50만원을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를 2011년부터는 평균임금의 40퍼센트(월 50만~1백만원)로 인상한다.

마지막으로 창업인센티브 및 실업급여 부문은 유망분야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고, 실직자 및 도산사업장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층의 창업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앱 등 유망 지식 서비스 분야에서 1인 창조기업 육성을 대폭 확대(99억→2백10억원)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신기술 벤처창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타 실업급여와 도산사업장의 임금체불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체당금(替當金) 지원, 직업훈련 중 생계비 대부자금도 작년보다 확대한다. G

글·이상흔 기자

정부 운영 취업포털사이트 ‘알짜 정보’ 가득

잡영 · 워크넷 · 월드잡을 아시나요?

내 맘에 쏙 드는 취업정보를 검색하느라 지쳤다면 여기 해결책이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취업포털사이트 잡영, 워크넷, 월드잡 등은 알짜정보만을 모아 필요한 내용을 쏙쏙 알려준다. 최근에는 ‘나를 좋아하는 기업의 정보’까지 매일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기업의 정보까지 매일매일 자동으로 업데이트해 드려요.”

청년 취업포털 ‘잡영(www.jobyoung.go.kr)’이 지난 1월 도입한 새로운 취업정보 서비스의 슬로건이다.

‘잡소개팅’이라 불리는 이 서비스는 구직자가 잡영에 회원 등록을 한 뒤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별도의 검색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구직자의 조건에 맞춰 ‘구직자가 찾는 기업’과 ‘구직자를 찾는 기업’의 정보를 동시에 보여준다.

잡영 청년 취업포털 ‘잡영’ 인재정보 매일 업데이트

구직자 입장에선 이력서에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자동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소프트매칭 검색’이라는 선진화된 기법이다. 기존의 구인·구직 검색에서는 검색자가 지정한 조건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일자리 정보만 보여주지만 소프트매칭에서는 검색조건과 유사한 정보까지 찾아준다. 구직자가 직종, 지역, 임금에 대한 가중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역(서울 종로구), 임금(2백만~2백50만원)으로 검색하면 종로구 외에도 구직자가 관심 가질 만한 지역인 성북구, 중구지역 채용정보와 임금 2백50만원 이상의 일자리 정보도 받아볼 수 있다. 벨기에, 프랑스, 영국, 독일 등 고용서비스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소프트매칭 검색방식을 도입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기업 역시 별다른 정보입력 없이 채용공고를 잡영 사이트에 등록하면 원하는 인재정보를 매일매일 업데이트된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정인수 원장은 “잡소개팅은 구직자와 기업의 매칭률을 점수와 순위를 매겨 알려줌으로써 구직자와 기업 양쪽 모두 각자에게 맞는 구인·구직정보를 자동으로 제공받게 돼, 구인·구직 정보의 미스매치(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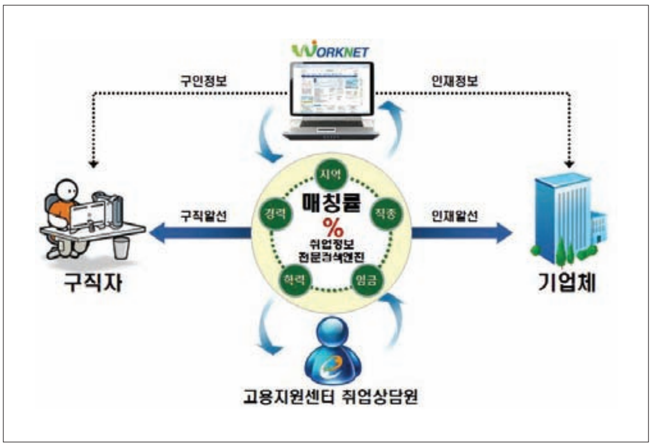
‘잡영’은 지난해 2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대졸·청년 취업준비생을 위해 개발한 취업포털이다. 작년 10월에는 젊은 사람들이 즐겨 쓰는 ‘네이트온’에 잡영 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해 이용률을 높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도 있어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다.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1만명을 넘는다.

취업정보의 수준도 높다. 6만7천여 건의 검증된 우량 중소기업 DB를 통한 우수 중소기업 채용정보와 함께 대기업, 벤처기업, 공공



‘잡영’의 잡소개팅 서비스는 나를 좋아하는 기업을 자동으로 알려준다.



‘워크넷’은 취업정보 전문 검색시스템을 도입해 구인·구직 매칭률을 높이고 있다.

기관, 외국계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채용정보는 기업규모별, 복리후생별, 우대조건별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분류돼 있어, 이용자가 선호하는 조건에 맞춰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서비스로 사이트 개시 1년 만에 6천5백73건(1월 25일 기준)의 채용건수가 발생했다. 등록된 인재정보는 현재 13만명이 넘는다. 초대졸 이상부터 석박사까지 고학력 인재의 이력서 열람과 함께 직종별, 자격증별, 전공별, 석박사별, 직무별 인재정보 등 검색편의성을 제공하여 기업들의 채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이 밖에 근무환경과 미래비전이 좋은 '우리 시대 행복지수 1등 기업' 소개, 직업탐색을 위한 8가지 무료 적성검사 및 직업정보 제공 등의 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잡영'에 가입하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워크넷'도 별도의 가입 없이 이용가능하다.

워크넷 고용·취업 종합서비스… 취업률 30% 달해

고용·취업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취업포털 '워크넷(www.work.go.kr)'은 전국 고용센터의 인증을 거쳐 신뢰할 수 있는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한다.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3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이용률이 높으며 지난해 워크넷 취업알선 현황을 보면 취업률이 30퍼센트에 달한다. 청소년, 고령자, 여성 등 구직자에 따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며 워크넷을 통해 구인·구직과 알선까지 이뤄진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지원금 및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월드잡 해외취업 전문 글로벌리더 양성 기여

정부는 취업포털로 해외취업도 알선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해외취업 전문 포털 '월드잡(www.worldjob.or.kr)'은 글로벌리더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글로벌리더 10만명 양성사업 중 해외취업 2만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취업 알선 및 연수사업 정보를 제공한다. 월드잡은 'World(세계)를 Job(잡)아라!'라는 의미로 해외취업을 통해 더 넓은 세계에 대한 도전정신을 고취시키고 있다.

국가 및 직종별로 다양한 해외취업 채용정보와 해외취업희망자의 직무 및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IT, 기계·금속, 전기·전자기술직, 건설·토목, 사무·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취업을 수시로 알선한다. 관련 업종에서 최소 2~3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며 일정한 외국어능력 등을 갖춘 사람들이 대상이다.

해외취업 연수도 적극 지원한다. 구인업체에서 요구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미취업자의 경우 IT, 자동차설계, 항공승무원, 한국어강사, 비즈니스 등의 직종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아 3~10개월간 연수를 받게 된다.

'워크넷' 취업알선 현황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구직건수	1,872,562	2,230,879	2,361,669	3,256,415	3,390,254
구인건수	463,932	542,473	588,702	663,025	894,612
알선건수	2,777,236	3,505,775	6,433,794	9,735,515	18,337,389
취업건수	476,730	582,660	634,309	864,755	949,097
취업률(%)	25.5	26.1	26.9	26.6	27.9

정부지원금은 최고 3백60만원(취업성과금 별도)까지 지원되며 연수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취업까지 연결해 준다. 해외취업 후에는 취업자의 현지적응 및 불편사항 해결 등 사후관리도 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해외취업시장의 구인 수요는 매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매년 1천4백~1천6백명의 인력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해외로 취업하고 있다. 2009년에는 총 1천5백71명이 공단을 통해 해외취업에 성공했다.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12월 〈해외취업가이드북〉을 출간했다. 국가별·직종별 해외취업정보와 함께 선배들의 해외취업 노하우를 담은 '해외취업 성공수기'도 있다.

'월드잡'을 통해 네팔 관저요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임근영씨는 "이곳에서 네팔음식을 접하고 근처에 인도식당도 많아 인도음식도 알아가기 시작했다"며 "한국 전통 요리법과 이곳 현지인들의 음식을 접목하는 아이디어로 새로운 음식을 창조해 내는 일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중의 하나"라고 취업수기에 썼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유재섭 이사장은 "월드잡사이트 운영으로 해외취업희망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우량 구인처 발굴을 위해 해외 각지의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전통적 취업국가인 일본, 중국 등을 넘어 아프리카, 유럽 등 미개척 지역으로의 구인처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G

글·이제남 기자



국내 유일의 해외취업 전문 정부기관 사이트 '월드잡'은 글로벌리더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구직자-기업 '채용 중매' 나섰다

KB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대표 은행들이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키는 '중매자' 역할을 하는가 하면 지원금을 통해 기업들의 채용을 독려하고 있다. 이미 수만 명의 구직자가 직장을 구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1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KB금융그룹의 일자리 연결 프로젝트인 '굿 잡' 출범식이 있었던 것이다.

굿 잡은 KB국민은행의 1천2백여 지점이 발굴한 우수 중소 중견기업의 구인 정보를 전용 사이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청년 구직자에게 제공하고 구인 기업엔 우수 인력의 정보를 알려준다. 기업과 인력의 '맞선' 자리를 마련해 주는 셈이다.

KB, 중소기업과 구직자 '맞춤 중매'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에 동참하고 리딩 금융그룹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같은 노력에 나서게 됐다"며 "KB 굿 잡이 고객감동의 기업철학 실천을 통해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돕는 희망과 상생의 한마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 측은 굿 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과 구직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구인기업(0.5퍼센트 포인트)과 구직자(0.2퍼센트 포인트) 모두에게 여신금리를 할인해 준다. 반대로 수신금리는 올려준다. 구직자는 0.3퍼센트 포인트, 구인기업은 0.2퍼센트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받는다. 금융거래 수수료도 깎아 주거나 면제해 준다. 직장도 구하고 재테크도 하는 셈이다.

기업에는 기업신용등급 평가 시 가점을 준다. '중소기업 신용평가시스템'의 비재무 평가항목 중 '사회적 책임 경영 실천 정도' 부문에 점수를 더해 준다.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대출금리가 할인되기 때문에 기업들로선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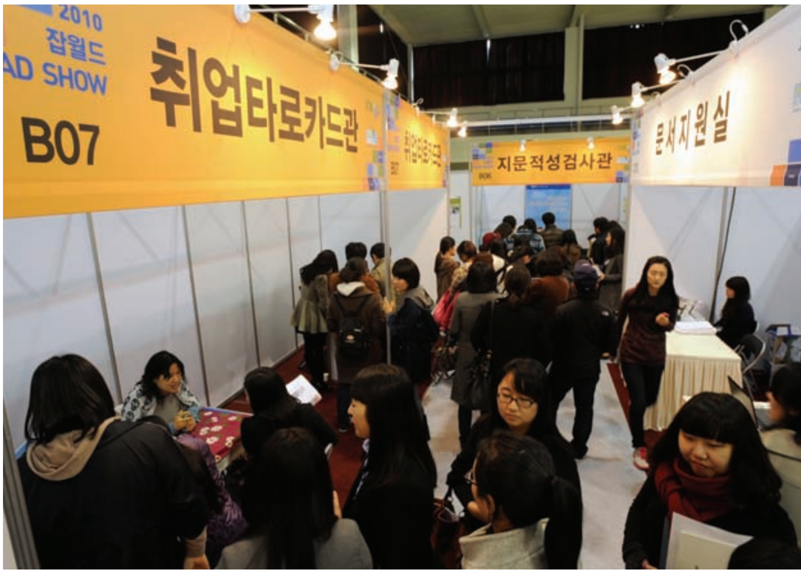
KB금융지주

KB금융그룹은 전국 지점망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연결시켜 주는 '굿 잡'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프로젝트 참여 기업과 구직자에겐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교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CEO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직원들에게는 재무관리와 세무회계 등 경영교육과 IT교육을 실시한다.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한다. 전문컨설턴트가 1주일간 회사에 상주하며 중소기업들의 관심사인 가업승계와 경영 컨설팅을 해준다.

구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취업캠프를 통해 취업관련 마인드를 교육하고 지원서 작성과 모의면접 등 실용적인 훈련도 실시한다. 모의면접에 실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가 참여한다. 인성검사와 적성검사 등 취업컨설팅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왕기 KB금융지주 홍보담당 부사장은 "전국 지점망과 제휴 기관 등을 통해 우수기업과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향후 구직 대상을 중·장년층과 주부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5백명, 1천명이라도 유망한 청년들이 중소 중견기업에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DB

기업은행은 16회에 걸친 채용박람회를 실시해 약 5천명에게 일자리를 구해줬다.

기업은행, 2만5천 일자리 창출

기업은행도 일자리 연결 프로젝트인 '잡월드'를 진행하고 있다. 구직자들에게 우수 중소기업의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09년에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약 2만5천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행의 강점이 제대로 발휘됐다는 평가다.

기업은행은 국내 중소기업의 24.1퍼센트에 해당하는 73만4천 개의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3백만명을 넘어선다.

기업은행의 잡월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든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전국을 돌며 채용박람회를 열고 있다.

지금까지 16회에 걸친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총 방문자가 7만1천명에 이르고 9천8백명이 현장면접에 참여해 4천6백70명이 합격했다.

기업은행은 올해도 잡월드 프로젝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으로 대상기업을 확대한다.

콘텐츠 미디어, 사회서비스, 관광 및 교육 등 고용효과가 높은 유망 서비스업종에의 취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에 관심이 높은 청년층과 기업의 요구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원하는 구직자 대상도 넓힌다. 산업기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특성화고교생에게 우수 일자리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핵심 기능인력을 확보하고 전문계고 취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관련기관과 서울여상 등 7개 특성화전문계고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신한은행은 2009년부터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인 '잡 S.O.S 4U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09년 시작한 1차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했다. 급여의 80퍼센트를 1년간 제공해 중소기업의 채용을 유도했다.

2009년 전임직원이 반납해 조성한 3백70억원이 사업 밑천이었다. 약 1천2백 기업에 3천명 가량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입었다.

신한은행, 중소기업에 인건비 지원도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2차 프로젝트는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월 30만원을 제공한다. '잡 S.O.S 희망적금' 계좌에 3년간 총 1천80만원을 적립해 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해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3년간 혜택을 나눠 제공하기 때문에 장기근속이 확대되는 효과도 있다.

신한금융그룹의 전 계열사가 출연한 5백60억원의 기금이 재원이다. 5천명의 중소기업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1천7백여 명이 혜택을 입고 있다.

채용박람회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개최한 '2010 신한 희망 채용박람회'에서는 1천4백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박람회를 통해 채용을 한 기업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했고 박람회 이후에도 사후 매칭을 진행해 채용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G

글·변형주 기자



김승완 기자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은 일자리 연결 프로젝트인 '굿 잡'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실업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윤대 KB금융지주회장… 청년 일자리 연결 사업 '굿 잡' 지휘

"KB 믿고 중소기업에 도전하세요"

대학총장을 지낸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은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르다. 비즈니스에서도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할 정도다. 최근 출범한 청년 일자리 연결 사업인 '굿 잡'도 청년의 미래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다. 1천2백여 개의 전국 지점망을 최대한 활용해 청년 실업 해소에 힘을 보태겠다고 어 회장은 강조했다.

"취업은 남녀가 선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눈높이가 맞아야 합니다. 서로에게 정확한 정보를 준다면 눈높이를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외형만 그럴싸한 기업이 아니라 내실 있고 미래가 유망한 중소 중견기업을 발굴해 구직자들에게 알려나가겠습니다."

한국의 고용시장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민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은 고용시장의 이 '미스 매치'의 원인을 정보 부족에서 찾는다. 기업에 대한 정보가 구직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의 실업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보가 문제입니다. 좋은 중소기업, 청춘을 바칠 훌륭한 중견기업은 얼마든지 있는데 단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범한 '굿 잡'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계획됐습니다. 자녀와 조카에게 추천할 만한 중소 중견기업들을 발굴해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굿 잡'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전국 1천2백여 개 지점의 기업금융 담당자들이 총동원됐다. 10만 거래 기업 중에서 고르고 골라 6천여 개의 우량 중소 중견기업을 선별했다.

매출 1백억원 이상, 신용등급 BB 이상 등 정량적인 기준에 성장가

능성 등 정성적인 기준을 버무려 선택한 회사들이다.

“기업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협력을 구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죠. 은행이 기업의 ‘갑’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선 그 반대였습니다. 워낙 우량기업이다 보니 은행에 크게 아쉬울 게 없죠. 오히려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은행이 고개를 숙여야 하는 기업들입니다. ‘굿 잡’ 준비기간 중 KB는 ‘을’이었습니다.”



KB금융지주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이 건설기계업체인 '에버다임'을 방문해 브리핑을 듣고 있다.

“KB 역량 총동원 6천여 우량 기업 발굴”

대학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낮아 ‘굿 잡’에 동참하기를 꺼리는 대학이 많았다. 중소기업 기피 현상은 예상보다 뿌리가 깊었다. 학생들 역시 중소기업을 반기지 않았다.

“중소기업이라도 대기업 못잖게 우량한 기업이 많습니다. KB의 기준을 통과한 기업이라면 도전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시작은 KB의 거래기업을 대상으로 선별했지만 앞으로는 비거래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굿 잡’ 프로젝트는 당초의 계획보다 다소 축소됐다. 원래는 정보제공만이 아니라 직접 일자리를 알선하고 연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금융기업이 일자리 알선을 하면 안 된다는 제약이 있어 ‘알선’은 포기해야 했다. 대신 최선의 정보제공에 보다 공을 들였다.

“‘굿 잡’의 출범 시기를 잘못 잡은 것 아니냐는 말씀도 하십니다. 취업 시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굿 잡’의 타깃은 공채시장이 아닙니다. 소규모 수시채용 시장이 ‘굿 잡’의 대상입니다. 채용 사실을 널리 알릴 역량이 부족한 중견 중소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KB의 ‘굿 잡’ 프로젝트는 국내 최초의 시도는 아니다.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은행도 있다. 하지만 KB ‘굿 잡’은 KB의 사업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차별화된다.

KB는 1천2백여 개의 지점망을 갖춘 국내 최대 은행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기업과 구직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갖추고 있다. KB는 전국의 지점을 해당 지역의 일자리 채널로 만들 계획이다. 지점의 TV에 기업을 소개하는 등 홍보 공간으로도 활용한다.

“숫자 경쟁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KB가 이익을 얻을 마음도 없습니다. 물론 은행의 이미지 개선이나 미래고객 확보 차원에서 도움도 되겠지만 비즈니스를 고려해 추진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순수한 사회공헌의 차원에서 계획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좋은 일은 많은 기업과 사람이 참여할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기업과 은행이 동참하면 더 좋겠죠.”

KB ‘굿 잡’은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을 불러들이고 있다. 구직자는 물론이고 기업과 관련 기관들의 협력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굿 잡’에는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인크루트, 한국능률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향후 중소기업청 등과 협력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의 구직자 풀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 채용에 소극적 자세 아쉽다”

어 회장은 중소기업들도 인력 확보에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사와 채용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급여와 복지는 ‘면접 후 결정’하겠다는 태도로는 구직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다.

어 회장은 청년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대학총장을 지낸 교육자 출신이니 당연한 마음이다. 그의 청년 사랑은 비즈니스로도 연결된다. 최근 KB가 운영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공간인 ‘락(樂) 스타’가 대표적이다.

세미나 공간도 있고 무선 네트워크 사용도 할 수 있고 카페도 있다. 학생들에겐 예금 금리도 우대한다. 학생들을 위한 6개월짜리 단기 적금도 내놓았다.

“대학에 오래 있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많은 것을 베풀고 싶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젊은 은행’ 이미지를 심을 수 있고 미래 고객을 유치하는 효과도 있으니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죠. 당분간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젊은이들을 위한 사업은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G 글·변형주 기자

이윤보다 공익… 사회적 기업 만든다

민간기업들은 최근 사회적 기업 설립 또는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고 있다.
지난달 20일엔 SK그룹이 "직접 채용과는 별도로 2013년까지 사회적 기업 30개를 신설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4천여 개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의지를 밝혔다.

기업의 사회공헌 흐름은 종전 단순기부에서 사회공헌을 통한 전략적 기부, 지역사회투자를 거쳐 최근 기업과 연계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거나 설립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기업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든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재 포스코, SK, 현대·기아차 그룹이 선두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거나 지원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포스코/현대·기아차 그룹 새터민·고령자·장애인 일자리 마련

사회적 기업을 직접 설립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기업의 대표적인 경우는 포스코와 현대·기아차 그룹이다.

포스코는 이미 지난 2008년 1월 자회사 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포스위드'를 설립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했다. 2009년 12월과 2010년 1월엔 자립형 사회적 기업 '포스에코하우징'과 '광양 포스플레이트'를 각각 설립한 바 있다.



일러스트·이우정

특히 포스에코하우징은 지난 한 해 전체 직원 41명의 사업장에 지역의 취약계층 27명을 채용한 바 있다. 고령자·장애인·청년실업자·결혼이민여성 등 다양한 취약계층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 4월엔 새터민(탈북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자립형 사회적 기업 모델로 '송도에스이'를 설립,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현재 경인지역의 포스코 및 관련사 신축빌딩의 청소와 주차관리를 담당하는 송도에스이는 새터민,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 1백5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새터민(35명)이 근무하고 있다.

포스코는 2012년까지 송도에스이의 새터민 채용인원을 7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송도에스이를 포함한 4개의 사회적 기업을 통해 2012년까지 총 7백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기아차 그룹도 지난해 8월 경기도와 장애인 보조 재활기구를 생산해 내는 이지무브를 설립해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2012년까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1천 개를 만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SK 2005년 '일자리 창출 로드맵' 수립

SK는 국내 기업 최초로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수립해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직접 채용과는 별도로 2005년 시작한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와 사회적 기업 지원을 통해 현재까지 6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2005년 6백10개 일자리에서 10배가 늘어난 수준이다. 현재 6천여 개의 일자리는 대부분 장애인, 고령자, 장기 실직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2013년까지 3년간 30개의 사회적 기업을 새로 만들고, 연간 약 1천3백 개씩 모두 4천여 개(이하 누계)의 사회적 기업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 지자체 1 사회적 기업' 설립, '1 관계사 1 사회적 기업' 설립, '혁신형 사회적 기업 설립' 등 3대 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 중 '1 지자체 1 사회적 기업' 사업은 SK의 사회적 기업 성공모델인 '행복한 학교'를 9곳, '행복도시락'을 2곳에 신설해 3년간 지자체를 통해 모두 3천4백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한 학교는 SK가 지난해 서울·부산·대구에 설립한 사회적 기업으로, 교사 자격증이 있는 미취업 여성 등을 고용해 맞춤식 방과 후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국 29곳에 급식센터를 둔 행복도시락 역시 취약계층 등을 고용해 결식아동과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함께 추진하기로 한 '1 관계사 1 사회적 기업' 사업은 관계사들이 각사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 사회적 기업 12개와 일자리 400여 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지자체 등과 손잡고 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꾀하는 '혁신형 사회적 기업' 7개 설립 계획도 세웠다.

SK는 '혁신형 사회적 기업'을 통해 2백여 개의 사회적 기업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하이원리조트 사회적 기업 설립 추진

함께 일하는재단과 함께 도내의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돕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벌이는 하이원리조트도 올해 사회적 기업 설립 추진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하이원리조트는 올해 카지노 도박중독자의 재활치료와 사회복귀를 돕고 폐광지역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이원베이커리 사회적 기업'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하이원리조트 사회공헌위원회 안석순 과장은 "2012년 법인등록 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목표로 사람사랑과 함께 제과, 제빵 직업훈련과 도박중독 치유프로그램을 병행해 연내 공장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우드펠릿사업단'의 사업적 성장 토대를 탄탄히 구축하는 한편 2012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목표로 올해 우드펠릿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기업 설립이 본격화되면서 기업의 설립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직접 영리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나 기업재단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설립 또는 전환하는 형태도 있지만, 비영리 중개기구와 파트너십을 맺고 일정 기간 인큐베이팅(incubating) 기간을 거쳐 비영리 조직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도 있다.

비영리 중개기구와 파트너십을 맺고 인큐베이팅 기간을 거쳐 영리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도 생기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고용노동부 사회기업과 최승훈 사무관은 "몇 년 전부터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사회공헌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로 많이 실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사회공헌의 흐름이 '단순 기부'에서 '자활의지를 위한 환경 제공'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원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G

글·박근희 기자

일자리 창출로 대통령 표창 받은 기업들

"고용창출이 희망창출… 한 명이라도 더"

일자리 창출 노력은 민관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는 2010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에 대해 포상을 수여했다. 최고 영예의 상인 대통령 표창을 받은 13개 기업과 단체는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반도체, 다솔전자, 광주인탑스, 리홈, 한솔교육, 건양대, 영남대,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한국수력원자력, 부산지역 고용파트너십포럼, 창업진흥원이다.



LG디스플레이

2010년 12월 28일 서울 역삼동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2010 일자리 창출지원 유공 포상'에서 단체부문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은 정부뿐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은 개인과 단체 부문으로 나뉘어 수여된다. 단체 부문의 최고상은 대통령 표창이다. 지난해 대통령 표창은 모두 13개의 기업과 단체에 돌아갔다.

LG디스플레이 "작년 6천7백79명의 일자리 창출"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반도체, 다솔전자, 광주인탑스, 리홈, 한솔교육, 건양대, 영남대,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한국수력원자력, 부산지역 고용파트너십포럼, 창업진흥원 등이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13개 기업과 단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정책을 소개한다.

LG디스플레이(대표이사 권영수)는 경기불황이 이어진 작년 한 해에만 6천7백79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을 인정받았다. LG디스플레이의 고용인원은 1999년 설립 당시 2천9백여 명이었으나, 현재는 3만명(국내기준)이 넘어 10배 이상 늘었다.

2009년 매출액은 20조6천1백40억원이다. 이 가운데 수출이 9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투자—수출'의 삼박자를 고루 갖추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점 또한 높이 평가받았다.

임직원의 '삶의 질'을 고려한 인사제도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08년에는 사내 도급업체 인원 1천여 명을 LG디스플레이의 정직원으로 채용한 바 있다.

하이닉스반도체 "일자리 나누기와 산학협동에 앞장"

하이닉스반도체(대표이사 권오철)는 일자리 나누기와 산학협력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2008년 구형 팹(실리콘웨이퍼 제조공장) 라인을 철수하면서 생긴 유휴인력을 별다른 구조조정 없이 교육과 재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일자리 나누기의 모범을 보였다.

충북 반도체고등학교(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에 반도체 실습장비 4대와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5천여 점을 기증했다.

하이닉스반도체의 현직 엔지니어를 충북 반도체고에 산학겸임교사로 파견하고 있다. 반도체고 교사들도 반도체 관련 전문교육을 받게 하는 등 산학(産學) 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기술 사무직 3천8백명, 생산직 9천6백명 등 모두 1만3천4백명의 인원을 채용했다.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의 일등공신"

중소기업은행(은행장 조준희)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취업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기업은행은 청년취업을 돕기 위해 무료 취업포털인 잡월드를 구축·운영하면서 잡월드 채용박람회, 취업캠프, 일자리창출기업 특별우대 펀드 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중소기업이 구축한 '잡월드'는 국내 최초의 중소기업 전문 취업포털 사이트로서 모든 서비스와 콘텐츠가 무료다. 맞춤형 자동매칭 시스템으로 구직자에게 빠르고 정확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인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의 눈높이 차이를 줄여 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은 지역별 잡월드 채용박람회를 13회 개최하여 3천69명이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다.

신한은행 "작년에 평년의 4배 넘는 직원 채용"

신한은행(은행장 서진원)은 2009년 직원들이 반납한 급여 370억원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이 정규직 신규채용 시 매월 급여의 80퍼센트를 지원하는 'JOB SOS 4U'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총 1천1백78개 기업, 2천9백80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었다.

2010년 한 해 동안에는 기존 채용규모의 4배 가량인 7백5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평년에 1백50명 정도 채용하던 전담 전화상담사를 6백명 채용하는 등 신규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현재 2013년까지 5백64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JOB SOS 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구직자에게 매월 30만원씩 3년간 희망적금 불입을 지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실질급여 차이를 극복하게 도와주는 제도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솔교육 "여성취업에 일등공신"

교육 전문 회사인 한솔교육(대표이사 변재용)은 지난해부터 업계 최초로 학습지 교사를 정규직으로 채용, 학습지 교사의 근로 조건을 크게 향상시켰다.

한솔교육이 지난 한 해 동안 채용한 학습지 교사는 3백명이다. 임신과 출산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30~40대 기혼 여성을 정규직 학습지 교사로 채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한솔교육은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에이스클럽(ACE CLUB)' 인증서를 획득했다. 에이스클럽은 1년간 신규 정규직원을 30명 이상 채용하고, 매년 30명 이상 3년간 1백명 이상의 정규직을 채용하는 기업에 주는 인증서다.

영남대·건양대 "확실한 취업 지원"

영남대학교(총장 이효수)는 대학 입학 즉시 학생들의 적성을 파악한 뒤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진로 흥미적성검사 프로그램(YAT)과 경력관리 프로그램(YU CAN)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고 있다.

2006년부터 학생들의 자발적 취업준비 모임인 '취업면접스터디'에 운영비와 스터디 공간(룸)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졸업생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학 중은 물론 졸업 후의 취업지원까지 학교에서 하고 있다.

건양대(총장 김희수)는 전국 최초의 취업전용 건물 건립(2004년)과 취업전담 교수 임용(2003년) 등의 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취업지도를 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전국 최상위권 취업률(2009년 88.5퍼센트)을 달성했다.

광주인탑스·다솔전자 "청년인턴·취약계층 적극 채용"

광주인탑스(대표 김형태)는 LED 조명기기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회사는 생활가전 부품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기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술장벽이 높고 품질규격이 까다로운 일본에 LED 조명 제품의 대량 수출길을 확보했다.

휴대폰, 노트북 등의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다솔전자(대표이사 김영석)는 2008년 81명이던 직원이 2010년에는 2백13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청년 인턴제로 취업한 인원이 2009년 8명, 2010년 34명이다. 탈북자나 장애인 등의 취업 취약계층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전기압력밥솥 및 종합 생활가전 전문회사인 리홈(사장 노춘호)은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 고용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 지난해 인턴 2백명 1천9백명 채용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종신)은 2010년 한 해 신입사원 6백91명, 원자력 인턴사원 2백명, 원전전문 기능인력 1천8명 등 모두 1천8백9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매년 정원의 4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하고 있다.

부산지역 고용파트너십포럼(상임대표 류장수)은 2009년부터 '부산고용대상'을 시행하는 등 고용문제를 부산지역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시키는 등 지역 고용문제 해결에 노력했다. (사)창업진흥원(원장 백두옥)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초기 창업지원과 창업교육 등의 창업인프라 구축,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을 통한 창업성공 지원 등의 노력이 인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G

글·이상흔 기자

원하는 시간에 맞춰 일하는 '시간제 정규직'

정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지원합니다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대에 일할 수는 없을까? 우리 사회에는 육아기의 여성,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 은퇴를 준비하는 고령층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많다. 이런 수요를 파악해 정부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기업 대상으로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

경기도 안산시 한도병원은 야간시간과 피크타임에 정규직 시간제 간호사를 채용해 간호사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정규직으로 주4일 근무, 주3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홍유희(26)씨는 렌즈 생산 바이오 전문기업인 지오메디칼의 시간제 정규직으로 채용된 1호 근로자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주 4일만 근로하는 조건으로 현재 물류파트에서 일하고 있다. 홍씨는 시간제 근무를 하며 자신에게 있어 중요한 가치로 우선되는 봉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주외국인이나 유학생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매일매일 출근을 하면 활동을 못하잖아요. 봉사활동하는 게 저한테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연장근로가 없어서 퇴근을 제시간에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사실 홍씨는 자신의 일자리가 상용직인 정규직 일자리라는 점을 알고 조금 놀랐다고 한다. 지금까지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시간제 근로자는 아르바이트처럼 으레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일자리이거나, 단기 계약직으로 6개월이나 1년을 일하면 당연히 그만두는 일자리로 생각해 온 것이다.

홍씨는 "지금 제 일자리가 원한다면 언제까지나 다닐 수 있는 정규직 직장이라는 게 마냥 신기하고 놀라워요"라며 "풀타임 정규

직 일자리도 하늘의 별 따기인 요즘, 제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걱정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생겨 정말 행복합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작년부터 ‘시간제 일자리 창출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시간제 근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해소하고 양질의 시간제 근로 확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다.

지난해 50개 사업장, 컨설팅·인건비 지원받아

노사발전재단이 사업을 위탁해 장시간 직무의 분할, 새로운 시간제 직무 개발, 시간제 근로자 인사관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 창출된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일부 보조함으로써 시간제 근로의 점진적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2007년 출범한 노사발전재단은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정이 공동 설립한 민간자율기구다. 노사가 책임감을 갖고 공동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노동 관련 정책결정과 사업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시간제 근로자 임금의 50퍼센트로 1명당 월 40만원을 한도로 하며 지원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만 50개 사업장이 컨설팅과 인건비를 지원받았다. 이 중 8곳은 우수사례로 꼽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의 모범이 되고 있다.

지난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오메디칼은 폭발적인 성장으로 지난해 직원이 1백80여 명으로 늘었지만 매년 11월이면 비수기가 시작되어 곤란한 상황이다. 렌즈 판매는 축제 등 행사가 많은 때가 성수기인데 매년 11월이 되면 외국의 축제들이 거의 끝나기 때문이다.

인력규모가 커지자 주문량이 감소될 때에도 유지해야 하는 인건비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다. 주문량을 제대로 소화하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묘안이 절실해진 것이다.

더구나 렌즈와 같은 광학업계에서 제품 불량률은 평균 20퍼센트에 달한다. 이 기업의 불량률은 업계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불량률을 줄이는 것은 생산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지오메디칼은 비용부담이 되더라도 시간제 근로자를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어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속감이나 애사심이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가 나는데, 이는 바로 불량률의 증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오메디칼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 컨설팅 제안을 받고 이번 컨설팅에 참여하게 됐다.

노사발전재단은 비수기에도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컨설팅 초점을 맞추었고 그 결과 시간제 근로자가 대안책으로 마련됐다.

지오메디칼의 강만석 부사장은 “정규직 근로자 수가 늘어날 경우 인력관리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좋은 인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채용이 필요하다”고 사업 참여 이유를 전했다. 지오메디칼은 이번 컨설팅에 참여한 덕분에 정규직 신규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인력 증가에 따른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는 점은 중소기업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이 밖에 씨엔티테크, 한도병원, 할리스에프앤비 등이 시간제 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우수한 성과를 냈다. 외식업체 전문콜센터인 씨엔티테크는 근로자들이 언제라도 필요한 시간에 나와 일할 수 있는 편한 일자리를 제공했다. ‘할리스커피’라는 토종커피 브랜드로 주목받고 있는 할리스에프앤비는 정규직 파트타임 바리스타 일자리를 제공해 직원들의 근무만족도를 높였다. 한도병원은 야간시간과 피크타임에 정규직 시간제 간호사를 채용함으로써 인력운용의 탄력을 높이고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평을 얻었다.

일자리 증가·삶의 질 향상 등 장점 많아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수사례집 발간사를 통해 “육아기의 여성,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 은퇴를 준비하는 고령층 등 사회적으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많다”며 사업추진 배경을 밝혔다.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면 일자리의 증가, 산업재해 감소, 노동생산성 증가 등 경제적 측면의 기대효과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 가족가치의 복원, 자기계발을 위한 투자 등 1석 6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어 “우리나라는 시간제 근로 비율이 OECD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시간제 일자리는 열악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지만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컨설팅 지원을 1백 개 사업장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번 컨설팅으로 상용직 시간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건비도 지원되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발전재단 김용달 사무총장은 “정규직 시간제 근로가 확산되면 근로자 개인에게는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는 물론 효율적 시간활용을 통한 장기적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다양하고도 질 높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모델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G

글·이제남 기자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많이 생겨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구직자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만한 괜찮은 일자리는 정규직이면서, 평균 임금의 1.5배 이상을 받고 주당 근로시간이 18~50시간 정도인 일자리라고 한다. 그리고 대학 졸업반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며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은 본인의 흥미와 적성이다.



인크루트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채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크루트'(www.incruit.com)는 국내 최초로 온라인 리크루팅 서비스를 시작한 대표적인 취업인사포털이다.

1998년 6월 인터넷 채용 시스템을 선보이며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채용시장을 온라인 기반의 채용시장으로 변화시키는 선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2011년 1월 현재 기업회원은 95만, 개인회원은 450만명 이상이다. 인크루트 이광석(37) 대표에게 요즘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요즘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구직자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만한 괜찮은 일자리는 정규직이면서, 평균 임금의 1.5배 이상을 받고 주당 근로시간이 18~50시간 정도인 일자리라고 합니다.

충분한 연봉과 보상이 따르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의 첫번째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적성, 흥미와 매치 여부도 중요합니다. 최근 인크루트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 졸업반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며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은 본인의 흥미와 적성이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무엇보다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채용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취업난은 많은 구직자가 대기업의 한정된 일자리에 몰림으로써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절실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봉, 복리후생 등 처우의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대기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연봉과 근무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인재를 데려오는 '채용'도 마케팅처럼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대기업들이 자사가 구직자들에게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보이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서의 인식을 획득하기 위해 '채용마케팅'에 나서야 합니다.

방법은 많습니다.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 복리후생이 우수한 회사, 자기계발 가능성이 높은 회사,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회사 등 자

사의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어필 포인트를 개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구직자에게 효과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CEO를 비롯한 경영진의 인식전환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정부가 직접 청년층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업계가 스스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일자리를 늘렸을 때 혜택을 주는 등의 제도적 도움과 함께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민간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좀 더 거시적이고 멀리 내다보는 시각을 가져 인재에 투자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아이디어, 기술, 혁신 모두 사람이 행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안주하는 기업은 결국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빠른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스스로 혁신해 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밖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곧 기업이 사는 길'이라는 근본적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인사 채용 담당자들이 신입사원 채용 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요기업 채용담당자들은 신입사원들의 역량과 실력은 대동소이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없는 신입사원들의 경우, 그들을 구분 짓는 가장 큰 차이는 '잠재력'과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직무에 대한 열정과 회사에 대한 애사심 등 자세와 태도를 더 강조합니다.

구직자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업의 채용방식과 문화가 나날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입사시험을 봐서 그 성적순으로 성패가 갈렸지만 지금은 기업마다, 직종마다 모두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우대받는 역량이 어떤 곳에서는 기피하는 요소로 꼽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일찍부터 일하고 싶은 직종,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 등 구체적인 목표설정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가 정해졌다면 꾸준하고 일관성 있는 준비가 필요하고요. 결국 기업의 채용은 얼마나 잘 준비한 사람인가를 보는 과정입니다. 이른 목표설정과 일관된 맞춤준비,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크루트

인크루트가 개최한 외국인 투자기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인크루트가 'KB굿잡'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KB굿잡'은 KB국민은행이 청년 구직자와 우량 중견 중소기업과의 만남의 장을 열어주기 위해 만든 구인구직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점포를 통해 국민은행과 거래하는 중견 중소기업과 전국의 구직자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구직자에게는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인크루트는 KB국민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업직종별 채용정보', 한눈에 시기별 채용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공채달력', 취업선배들의 인터뷰와 강의를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취업선배와의 만남',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서식과 샘플, 가이드를 받아볼 수 있는 '이력서/자기소개서 가이드', 각 기업별 면접노하우를 묶은 '면접족보' 등 기업의 채용공고에서부터 취업전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콘텐츠를 공급해 나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KB굿잡'의 플랫폼으로 사용될 사이트(www.kbgoodjob.co.kr) 콘텐츠의 전반을 책임지게 된 셈입니다.

스마트워크는 앞으로 취업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으로 봅니까.

인크루트도 이미 아이폰용 '인크루트 앱'과 안드로이드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크루트 앱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곳의 위치를 잡아주고 이를 확인만 하면, 해당 지역의 채용정보와 아르바이트 정보를 빠르고 손쉽게 검색해 주는 모바일의 특성을 십분 살린 서비스를 포함해서 웹상에서 쓰던 그대로 인크루트를 모바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그야말로 정보유통이 한층 편리하고 쉬워지게 된 셈입니다. 많은 구직자가 다양하고 알짜 취업정보를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1990년대 말 인터넷 채용이 활성화됐을 때처럼 채용과 관련된 정보격차의 해소와 취업 편이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G

글 · 서일호 기자

문학 담당기자가 본 故 박완서의 삶과 문학

그 많던 작품들 다 뒤로 하시고… 이젠 별이 돼 한국문학 지켜주소서

지난 1월 22일 별세한 소설가 박완서씨는 명실상부한 한국현대문학의 거목(巨木)이었다.
박씨는 여성의 몸에 새겨진 전쟁의 상흔을 쉼 없이 되새김질하면서도 사랑·용서·화해의 높은 세계를 노래하며
한국 문학의 찬란한 봉우리로 우뚝 섰던 문인이다.



담낭암 투병 중 지난 1월 22일 별세한 소설가 박완서(80)씨는 한국현대사를 관통한 비극의 역사와 실향(失鄕)의 한(恨), 학업중단, 가족의 죽음이라는 개인의 체험을 내면화해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서사로 승화시킨 한국현대문학의 거목이었다.

"6·25전쟁 통에 오빠와 삼촌을 잃고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로부터 온갖 수모를 겪을 때, 그걸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은 언젠가는 저자들을 악인(惡人)으로 등장시켜 마음껏 징벌하는 소설을 쓰리라는 복수심이었습니다"라는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박완서의 문학은 기본적으로 증언의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욕구는 박완서에게 글을 쓰고 싶은 열망을 갖게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를 문학에 온전히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되기도 했다. 박씨는 "20년이 지난 뒤에야 증오와 복수심만으로는 소설이 써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실향의 한(恨)·학업중단·가족의 비극을 내면화

1931년 경기도 개풍에서 태어난 박완서는 1950년 서울대 국문과에 입학했지만 제대로 다녀 보지도 못하고 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했다. 가난 속에서 먹을 것을 찾아 서울 거리를 헤매던 그는 커다란 아픔을 연이어 겪었다.

2010년 여름 산문집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를 펴내며 그는 당시의 충격을 이렇게 표현했다. "꽃다운 20세에 6·25전쟁을 겪고 어렵게 살아남아 그해가 회갑을 맞는 것까지 봤으니 내 나이가 새삼 징그럽다. 더 지겨운 건 육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물 줄 모르고 도지는 내 안의 상처다. 노구(老軀)지만 그 안의 상처는 아직도 청춘이다."

작가 박완서를 기억하는 사람은 모두 수줍은 듯 입을 가리고 소녀처럼 웃는 박씨의 웃음을 떠올린다. 그러나 그를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은 그 웃음의 이면에 가라앉은 큰 상처를 본다. 전쟁 중에 오빠를 잃고 병마와 사고로 남편과 아들을 잇달아 떠나보내며 무너질 뻔했던 한 여인이 자신의 내면에서 썩어 가는 환부를 소설이라는 수술칼로 도려낸 뒤 지은 용감한 웃음이었기 때문이다.

일상에서의 자애로운 미소와 달리 박씨의 소설에 나타나는 냉철하고 치밀하며 때로는 신랄하기까지 한 어조는 삶이 부과하는 고통의 기세에 결코 눌리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박완서는 여성의 몸에 새겨진 전쟁의 상흔을 쉼 없이 되새김질하면서도 사랑과 용서·화해의 높은 세계를 노래하며 한국 문학의 찬란한 봉우리로 우뚝 섰다.

6·25전쟁 체험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소재를 다룬 〈엄마의 말뚝〉 연작과 〈그 남자의 집〉은 남성 작가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여성의 체험이라는 새로운 프리즘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큰 문학적 의미를 지닌다. 그녀는 이 소설들을 통해 전쟁의 참혹한 기억을 고발했을 뿐 아니라 힘을 앞세운 폭력에 짓든 인간의 비열한 속성을 거침없이 들춰 냈다.

박완서는 인간의 내면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는 데 능했으며, 이를 명쾌하고 거침없는 서사로 표현한 탁월한 이야기꾼이었다. 〈휘청거리는 오후〉에서 그녀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등장한 중산층의 속물화된 일상과 허위의식, 세속적 탐욕을 신랄한 문체로 꼬집었다.

동시대의 삶을 기록하는 그녀의 세밀한 관찰은 한국 현대사 풍속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박씨는 여성이 처한 현실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여성주의적 관점의 소설도 다수 발표했다.

박완서는 문학적 성취와 독자의 사랑을 동시에 거머쥔 행복한 작가였다. 1992년 출간한 장편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는 1930년대 고향 개풍에서의 어린 시절과 1950년대 전쟁으로 황폐해진 서울에서의 20대까지 경험을 토대로 전쟁을 기억한 작품으로 1백만 부 넘게 팔렸다. 그녀가 77세의 고령에 발표한 소설집 〈친절한 복희씨〉도 30만 부나 나가며 그녀가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국민작가임을 증명했다.



故 박완서 연보

1931 10월 20일 경기 개풍 출생
1950 숙명여고 졸업,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중퇴
1970 여성동아 장편소설 현상공모에 〈나목(裸木)〉 당선으로 등단
1981 〈엄마의 말뚝 2〉로 이상문학상 수상
1989 장편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발표
1992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다룬 장편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발표
1994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으로 동인문학상 수상
1998 보관문화훈장 받음, 장편 〈너무도 쓸쓸한 당신〉 출간
1999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출간
2000~2006 동인문학상 종신 심사위원
2006 서울대에서 명예 문학박사 학위 받음
2010 산문집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출간
2011 1월 22일 담낭암으로 별세

생전 박완서씨는 한국현대사를 관통한 비극의 역사와 실향의 한, 가족의 죽음이라는 개인의 체험을 내면화해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서사로 승화시켰다.

노년의 박완서는 〈부숭이의 땅힘〉 〈이 세상에 태어나길 참 잘했다〉 등 동화집을 쓰며 세상에 태어난 것에 감사하며 살아 가는 기쁨을 어린이들에게 전하려 애썼다.

고 김수환 추기경과 나눈 아름다운 교유를 통해서도 그의 인간됨을 엿볼 수 있다. 2009년 김 추기경의 선종을 접한 박완서씨는 "그분은 정의를 위해 박해받고 쫓기는 이들을 말없이 그분의 날개로 덮고 품으셨을 뿐, 결코 선동하거나 부추기지는 않으셨다.

용인 천주교 공원묘지의 먼저 떠난 남편과 아들 곁에 안장

만약 그분까지 투쟁적이었다면 그분의 그늘, 그분의 날개 밑이 그렇게 편했을 리가 없다"고 했다. 김 추기경의 너그러운 인품과 넉넉한 포용의 경지는 곧 그가 삶에서 추구했던 덕목이었다.

박완서는 1970년 〈나목〉으로 등단한 이후 40년간 〈한 말씀만 하소서〉 〈너무도 쓸쓸한 당신〉 〈친절한 복희씨〉 등 10권의 소설집을 엮었고, 15편의 장편을 발표하며 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만해문학상, 인촌상, 황순원문학상, 호암예술상, 대한민국문학상 등과 보관문화훈장을 받았다. 1993년부터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했고, 2004년 예술원 회원으로 선임됐으며, 2006년 서울대에서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1월 24일에는 정부가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고인의 유해는 1월 25일 남편과 아들이 먼저 잠들어 있는 용인 천주교 공원묘지에 안장됐다. 〈조선일보〉에 연재된 에세이를 묶은 산문집 〈사람이 풍경일 때처럼〉에 기고한 글에서 그녀는 남편과 아들을 다시 만날 날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다.

고인은 몰일(沒日)만 빈칸으로 남겨 놓고 자신의 이름까지 미리 새긴 묘비를 세워 두었다고 밝히고, "갈 때마다 가슴이 에이는 듯 아프던 데가 이상하게도 정답게 느껴지면서 깊은 위안을 받았다"는 심경을 담담히 고백했다.

필자는 문학담당 기자로 이런저런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면서 인간적인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80년의 생애가 부과한 아픔과 고통을 속으로 갈무리하고 오직 문학의 높은 경지를 향해 쉼없이 정진한 위대한 소설가 박완서 선생의 영전에 깊이 머리 숙여 애도를 표한다. G

글 · 김태훈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조선DB

현빈은 오는 3월 7일 경북 포항에 위치한 해병대 교육 훈련단에 입소할 예정이다.

해병대 입대하는 '29세 대한 남아' 현빈

"이게 최선입니다, 확실해요"

대한민국의 건강한 성인 남성이라면 모두가 하는 군 입대인데 현빈의 해병대 지원이 전 국민을 열광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배우 현빈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는 기본 원칙을 실천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사회지도층'의 선택에 다시 한 번 전 국민이 감동했다. 바로 드라마 〈시크릿가든〉에서 주인공 김주원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현빈(본명 김태평·29)의 해병대 입대 얘기다.

극 중 '사회지도층'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현빈은 자신의 대사처럼 '귀신 잡는' 해병대 자원이란 '최선의 선택'을 했다. 무엇보다 최근 일부 연예인들이 군입대 문제로 구설에 오른 만큼 이번 결정은 더욱 빛났다.

현빈은 지난해 말 해병대에 지원했고,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면접을 봤다. 그렇다면 왜 하필 가장 힘들다는 해병대였을까?

해병대 역대 최고령 지원… 상위 1% 체력시험도 화제

드라마를 끝낸 뒤 영화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의 제작보고회에서 만난 현빈은 "특별히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라며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

"해병대 자원입대 일이 너무 커져서 솔직히 부담스럽다"고 담담하게 심경을 밝힌 현빈은 "많은 응원과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현빈은 케이블방송 tvN 〈현장토크쇼-택시〉에 출연해 "어릴 적부터 해병대 입대가 로망이었다"며 "제복이나 남성적인 것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만약 배우 생활을 안 했으면 대테러 진압작전을 수행하는 707부대에 갔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의 해병대 입대에는 무엇보다 가족의 조언이 큰 힘이 됐다. 현빈은 지원서를 접수하기 전 가족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특히 ROTC 장교 출신인 두 살 위 형이 많이 격려를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현빈의 이번 해병대 자원은 무수히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말 진행된 면접 및 체력시험에서 현빈은 최고 점수를 받아 또 한 번 팬들을 놀라게 했다.

이날 현빈은 팔굽혀펴기 15점, 윗몸일으키기 14점을 받았다. 팔굽혀펴기 15점(1분 동안 50회 이상이 만점), 윗몸일으키기 15점(1분 동안 58회 이상이 만점) 등 총 30점 만점인 해병대 체력시험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성적이다.



CJ엔터테인먼트

중국 영화 배우 탕웨이와 함께 열연을 해 화제를 모은 영화 〈만추〉, 베를린 영화제 포럼 부문에 초대됐다.



조선DB

배우 현빈(오른쪽)은 드라마 〈시크릿가든〉 에서 김주원 역으로 출연해 시청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현빈의 군 입대 관련 놀라운 소식은 이뿐이 아니다. 2008년 병무청에서 모집업무를 개시한 이후 해병대 지원자 중 최고령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 소속 송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현빈은 입대 후 경북 포항의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소해 5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전투병으로 해병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현빈의 해병대 자원입대 뉴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주요 매체 지면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1보가 나간 1월 12일엔 지상파 3사가 저녁 메인뉴스로 전했고, 이어 주요 일간지 사설이나 논설위원 칼럼에 등장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건강한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다 가는 군 입대 소식에 전 국민이 이처럼 열광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는 기본 덕목을 실천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전 국민적 신드롬 일으켜

그러나 우리 사회에선 날이 갈수록 이 기본 덕목을 지키는 이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전 국민적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사랑을 받은 현빈이 당당하게 대한민국 남아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 전 국민적 환영을 불러일으킨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회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최고위층'의 태도로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된 것이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스타들의 선택은 이후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연예계 병역 비리에 염증을 느껴온 이들에게 이번 자원입대 소식은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연평도 사건 이후 군 내부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번 일은 더욱 고무적으로 다가온다.

실제로 해병대 내부에서도 현빈의 입대를 반기고 있다는 분위기다. 해병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동료 연예인은 물론이거니와 또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해병대 자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베를린 국제영화제 2개 부문 초청 겹경사

"그게 정말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한 땀, 한 땀" "나에겐 당신이 김태희고 전도연이야" 등 무수히 많은 유행어를 만들면서 '주원앓이'들을 얻은 현빈.

금상첨화로 2월 개막되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자신이 주연을 맡은 영화 〈만추〉와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가 각각 포럼부문과 공식 경쟁부문에 초대되는 겹경사까지 누리고 있다.

배우로서 한 번 초대받기도 힘든 국제영화제 초대장을 동시에 두 장이나 거머쥔 것이다. 이뿐 아니다.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광고 러브콜이 무섭게 쏟아지고 있다. 입대 전까지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뛰어도 부족할 판이다.

2003년 데뷔 이후 어찌 보면 최고 인기 정점을 찍고 있는 그가 모든 연예계 활동에 일시 쉼표를 찍고 군복을 입기까진 많은 고민의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팬들은 그가 내린 '최선의 선택'에 환호하고 있다.

그리고 2년여 군 복무 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때, 그를 다시 '최고위층 스타'로 맞이해 줄 것이다.

이는 사랑을 받은 만큼, 아니 그보다 더한 마음으로 의무를 다하려는 현빈의 모습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게 팬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G

글 · 이정혁 (스포츠조선 엔터테인먼트팀 기자)

김화동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

“기업 하시는 분들은 FTA 꼭 아셔야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했다. 자유무역협정(FTA)도 그렇다. 타결되고 비준됐다고 저절로 보배가 되진 않는다. 기업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화동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이 아이디어를 낸 〈FTA 이해와 활용〉이 최근 출간됐다.



한용환 기자

김화동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은 FTA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법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선 기본적인 이해와 고민을 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FTA도 그런 사안이죠. 이번에 출판한 〈FTA 이해와 활용〉이 이를 위해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화동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의 새 책에 대한 기대다. 짧은 소감이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만만치 않다. FTA는 한국이 명실상부한 무역대국, 선진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도약대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FTA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수록 이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새 책은 이를 위한 일종의 ‘매뉴얼’이다.

중소기업 8백 곳에 맞춤형 컨설팅

“통상교섭본부가 대외적인 협상을 담당한다면 우리 대책본부는 대내적인 협상을 책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보를 통해 FTA가 비준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어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며 FTA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내적인 문제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1년을 ‘FTA 활용시대의 원년’이라고 부른다. 대책본부의 당면과제 역시 FTA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활용도가 높아져야 한다.

FTA를 무기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늘리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FTA에 대한 전략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인력부족 등 현실적인 이유 탓이다.

“대기업은 사실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 수출기업의 9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대부분 준비가 부족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본부는 지난해 6백여 개 중소기업에 무료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반응이 좋아 올해는 8백 개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무료라지만 내용은 알차다. 먼저 컨설팅 구성원이 관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정확한 조언이 가능하다. 컨설팅은 현

FTA는 한국이 명실상부한 무역대국, 선진경제로 발돋움 하기 위한 도약대이다. 따라서 기업이 FTA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수록 이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 새 책은 이를 위한 일종의 '매뉴얼'이다.



장중심적이다. 대부분 지방에 소재하지만 직접 현장으로 가서 생산 과정과 상품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맞춤형 컨설팅인 셈이다. 실무적인 일에서 향후 전략까지 제시하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무료 컨설팅을 실시하기 전부터 FTA의 내용과 활용법을 소개하는 노력은 있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업종과 분야가 유사한 기업들을 모아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료컨설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실무적인 제도 개선도 진행하고 있다. FTA 특례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청이나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이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들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본부는 증명서를 더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보완을 시행하고 있다.

FTA의 상대국에 대한 홍보도 담당한다. 주요 기업에 대한 팸플릿 배포, 전시회 참가 등 다양한 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FTA를 통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다.

FTA 통한 물가관리 효과 기대하세요

우리 중소기업처럼 상대국의 기업들도 FTA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 이들에게 FTA에 따른 이점을 설명해 줘 우리 기업과 거래를 증대시켜 보자는 취지다. 한·미 FTA와 한·EU FTA 발효 후에는 해외홍보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FTA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FTA 활용도'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었는데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기업으로 치면 괜찮은 상품을 만든 격 아니겠습니까."

FTA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피해를 받는 업종과 기업도 있다. 이들의 피해를 보전하고 향후 대책을 세우는 것 역시 대책본부의 임무다. 방향은 두 가지다. 직접적인 금전 보상과 R&D 등 경쟁력 강화 지원이 그것이다.

피해 업종에 대한 보완책은 당사자들을 돕는다는 면도 있지만 FTA의 국회비준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보완책이 없는 FTA가 국회비준을 받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 본부장은 물가관리 측면에서도 본부의 역할이 있다고 말한다. 관세가 낮아지므로 수입 상품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등 관세 인하가 소비자 후생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원인을 파악해 유통경로 개선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변형주 기자

〈FTA 이해와 활용〉 무슨 내용 담겨 있나

일반인도 쉽게 이해… 수출 현장 노하우 집대성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가 펴낸 〈FTA 이해와 활용〉은 FTA 관련 정보를 총망라하고 있다. 1장에선 FTA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FTA가 대두된 배경과 효과를 분석하고 협정의 구조와 내용을 설명한다. 2장은 FTA 선진국인 한국의 FTA 현황과 현상과정을 소개한다. 3장은 칠레, 싱가포르 등 발효된 FTA의 주요 내용을, 4장은 미국과 EU 등 타결 또는 준비 중인 FTA를 살펴본다.

5장은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으로 구성됐다. FTA의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과 성공사례, 통관절차, 정부의 지원책 등 실용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마지막 장에서는 향후 보완대책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집필을 했다는 점에서 책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그만큼 현장적이고 실용적이란 의미다. FTA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편찬된 만큼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조절한 것도 책의 미덕이다. 기본적인 이해부터 실무적인 정보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의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현장 공직자들의 노하우가 집대성됐다고 할 수 있는 책이다.

KOICA,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6개 프로젝트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리더국 위상 높인다

아시아 저탄소 녹색성장 리더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무상원조 전담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박대원 이사장은 지난 1월 20일 "KOICA가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 아·태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국제해사기구(IMO) 등 6개 국제기구와 협의를 맺고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사업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OICA의 이번 아시아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은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EACP)'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것이다. EACP는 아시아 전역에 저탄소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을 전파하기 위해 만든 우리의 국제개발 협력사업으로, KOICA가 주관하고 있다.

KOICA는 올해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국제기구 협력사업으로 55억원 규모의 6개 사업을 추가로 선정했다. 박대원 이사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수요 조사 및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2개 기구의 23건 사업이 접수됐다"며 "이 가운데 국제기구와의 협력 가능성, 사업 적정성, 기후변화 대응 기여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단순 재정원조 벗어나 기술이전 등 직접 참여

박 이사장은 또한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국제기구를 통해 물자나 재정을 지원하는 단순한 원조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우수한 녹색성장 기술을 지원해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립적인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는 캄보디아 중소기업에 우리의 친환경 기술이전(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아·태 지역 빗물 처리 시스템 공급을 통해 수자원 활용 및 재해 경감(UNESCAP), 중앙아시아 국가에 청정에너지 기술 이전(UNEP), 선박의 온실가스 저감 기술 이전(IMO) 등을 들 수 있다.

박대원 이사장은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과 정책이 개발도상국과 효과적으로 공유되길 원하며, 특히 폐기물 관리, 폐수 처리, 녹색 연료 전환, 그린 선박 등 녹색 기술 및 환경산업 기술에 대한 도움 요청이 늘고 있다"며 "정부, 국제기구, 민간 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돕는 한편, 한국의 우수한 기술 이전 기회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KOICA의 국제기구 협력사업은 사업 주체인 한국의 직접적인 참여가 돋보인다. 우리의 관련 부처와 기관은 단순한 재정적인 원조를 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수요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업 선정 전 과정에 국제기구와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기구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국제기구와 개발도상국 네트워크 확장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은 2008년부터 5년간 총 2억 달러(한화 약 2천억원)의 자금을 공적개발원조(ODA)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물관리, 저탄소 에너지, 저탄소 도시, 폐기물, 산림 등 5개 분야에 초점을 맞춰 기술지원, 정책 컨설팅, 프로젝트형 공적개발원조, 연구 개발 등을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G

글·이상흔 기자



연합


연합

순천시청 공무원 출신으로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농민들에게 한국 채소와 작물 재배법을 가르쳐 소득을 두 배로 끌어올린 강승규 KOICA 봉사단원(사진 위). 아래 사진은 KOICA 봉사단원들이 과거 노예무역 중심지였던 세네갈의 고레섬을 찾아 청소하고 있는 모습.

3년째 정책기자단 활동 박하나씨

“캠퍼스에선 경험 못한 소중한 체험들”

대한민국정책포털 공감코리아(www.korea.kr)에서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하나입니다. 정책기자단은 직접 국민의 시각에서 현장의 정책이야기를 전달하는 국민기자단을 말하는데요. 2년 동안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며 느꼈던 소중한 추억, 한번 들어보실래요?

“정책기자단이 뭐죠?”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감코리아 정책기자 박하나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창업에 성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성공비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퉁명스럽게) 거기가 뭐하는 곳이죠?”

처음에는 인터뷰 허락을 받는 것보다 정책기자단을 설명하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처음 들어 봐 의심스럽다며 인터뷰를 거절하기가 여러 번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국민기자단을 강조하며,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실제 경험담이나 사례를 덧붙여 설명한다면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인터뷰 요청이 수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 공부는 ‘공짜’, 글쓰기 능력도 ‘쑥쑥’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제 이름이 달린 기사가 공감코리아 정책기자마당(reporter.korea.kr)에 실렸던 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딱 꼬집어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때까지 느껴 보지 못한 희열감이랄까요. 올해로 3년째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책기자단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 인생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옆집 아저씨,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에 성공한 대학생, 한국생활에 적응해 노래봉사단으로 활동하는 결혼이주여성들, 70대에 공부하기 시작해 일본어 강사로 변신한 할아버지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 도전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위클리 공감의 애독자 삼남매를 소개합니다. 박이슬(여동생·25) 박하나(본인·26) 박기태(남동생·18)예요.

또 평소에 만나뵙고 싶었던 유명 인사들을 정책기자단을 통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여동생과 남동생도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동생(박기태·18·전주고2)은 외국인들에게 들어본 한식과 한옥의 매력 등 저의 취재현장을 따라다니며 정책기자단에 흥미를 느껴 지원하게 됐고요.

열렬한 애독자였던 여동생(박이슬·25·회사원)은 정책기자단을 통해 저의 글쓰기 실력이 많이 늘었다며 자신도 글 쓰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지원했거든요.

올 한해 정책기자단을 통해 개성 만점, 저희 삼남매의 좌충우돌 기자단 활동 많이 기대해 주세요. 대한민국 정책포털사이트 공감코리아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정책기자단 파이팅! G

“국민과 정부 정책소통 역할 특명” 떴다! 공감코리아 4기 정책기자단

대한민국정책포털 공감코리아 제4기 정책기자단이 1월 28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부 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책기자단은 흔히 어렵게 생각하는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로 풀어 쓰는 국민기자단이다. 2008년 30명으로 출발해, 올해에는 총 163명이 활동한다.

정책기자단에는 올해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부터 5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이들이 참여한다. 특히 다문화가족도 있어 색다른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박선규 문화부 제2차관은 “정책기자단이 국민의 시각으로 쉽게 쓴 기사는 다른 사람이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정책 담당자가 현장의 정책평가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며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 간의 다리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초등학생 체력저하 해결사

"우리학교에도 스포츠강사 있었으면"

전국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이 75퍼센트를 넘어섰다. 서울의 경우 무려 84.3퍼센트에 달한다. 교단의 여성화로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체육시간의 풍경도 바뀌었다. 체육시간 운동장에서 맘껏 뛰놀아야 할 아이들이 보이질 않는다. 이는 학생들의 체력저하와 비만으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조선DB

경기도 일산의 한 운동장에서 초등학생들이 야구와 비슷한 뉴스포츠 '티볼'을 배우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 동인초등학교의 학생들은 요즘 '뉴스포츠'에 푹 빠졌다. 방과 후 운영되는 스포츠클럽 '뉴스포츠'를 통해 플라잉 디스크, 티볼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스포츠를 배울 수 있어 신청인원이 항상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높다.

3년째 이곳에서 스포츠강사를 맡고 있는 김성황(29) 강사는 "제가 이곳에 온 뒤로 체육시간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체육교과와 연관된 다양한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안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면서 체육시간이 활기를 되찾았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전국 초등학교에 1천5백명의 스포츠강사를 지원한다. 2008년 도입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은 매년 지원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서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교사들이 체육수업을 진행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각종 체육활동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더구나 여교사의 경우 임신이나 모유 수유 기간에는 체육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뜨거운 태양 아래 오랜 시간 서 있어야 하는 점도 여교사들이 체육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다.

문화부, 올해 전국 초등학교에 1천5백명 지원

심지어 교사들 사이에선 '아나공' 수업이란 말이 통용될 정도다. '아나~ 공이다!'라는 말의 줄임말로 아이들에게 공을 던져주고 자유롭게 놀게 하는 것이 체육시간의 모습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당 3시간뿐인 체육시간이 이렇게 위축되면서 학생들의 체력저하와 비만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강사 지원은 단비와 같다. 지난 3년간 전국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지원으로 축구, 피구 등에 편향됐던 체육수업이 다양한 스포츠 활동으로 다변화되고 전문적인 수업지도가 가능해졌다.

학교현장에서 만족도도 매우 높다. 지난해 스포츠강사가 지원된 초등학교 1천2백여 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92퍼센트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스포츠강사 지원의 향후 지속 필요성에 대해서도 94퍼센트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현재 초등학교에 지원되는 스포츠강사는 체육계열을 전공한 전문 체육인들로 대다수의 강사가 중등 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스포츠강사들은 초등 체육교과 과정에 맞춰 육상, 체조, 구기 종목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가르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체육수업이 내실화되고 학교 운동장이 제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는 평이다.

수원 영통초등학교 6학년 담임을 맡은 김지영(35) 교사는 "실제로 초등교사 한 명이 10개 과목 모두를 골고루 내실 있게 준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매시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오시는 체육선생님 덕분에 그 시간에는 나도 옆에서 배우고 얻어가는 게 많다"고 전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면에서도 효과적이다. 교직이수를 한 체육전공자들의 새로운 일자리로 떠오르면서 일부 시도에서는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학교 현장 교사·학생 열 중 아홉 "매우 만족"

동인초등학교 배석우 교장은 "요즘 아이들은 운동부족과 비만이 많아 이런 학생들을 관리해 줄 전문강사가 필요하다"며 "동인초의 경우 학급수가 59개로, 적어도 2~3명의 스포츠강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스포츠강사 1분만을 지원받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마저도 올해까지만 지원된다. 수요에 비해 스포츠강사 수가 부족해 다른 학교에 강사가 지원되려면 이곳 지원이 끊겨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동인초가 속해 있는 남양주에는 65개 초등학교가 있으며 이 중 4개교만 스포츠강사를 지원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까지 전국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1명씩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이 녹록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공동 부담하고 있으나 지난해 교육청의 예산 미확보로 1천3백명의 목표인원 중 1천2백24명만 배치됐다.

다행히 올해 1천5백명으로 강사 지원이 늘었지만 이는 전국 초등학교의 1/4에 지원되는 수준이다. 일각에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상급식보다 스포츠강사 지원이 더욱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무상급식 예산의 일부만 활용해도 전 초등학교인 5천8백54곳에 스포츠강사 조기 배치가 가능하다.

서울시만 해도 올해 1백58개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가 배치되는 데 그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위해 배정한 예산은 약 14억원이다.

서울시 소재 전체 초등학교 5백87개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총 1백4억원이며 이 중 서울시교육청에서는 73억원(서울시교육청 70퍼센트, 문화체육관광부 30퍼센트 가정)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위해 확보했다고 하는 1천7백76억원의 예산 중 단 4퍼센트만 활용해도 스포츠강사를 서울시 전 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배석우 교장은 "가정생활 수준이 괜찮은 아이들까지 굳이 무상급식을 하기 보다는 체육강사 지원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아이들의 체력 향상과 체육수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의 조속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관남초등학교 김기식 교장은 "무엇보다 아이들이 체육활동 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 체력증진 면에서도 스포츠강사 지원은 꼭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교육방식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G

글·이제남 기자

전국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연합회 신동영 회장

"아이들이 운동에 자신감 갖고 즐겁게 참여"


사진 · 염동우 기자

전국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연합회 신동영 회장은 지난 3년간 초등학교 현장에서 스포츠강사로 활동해 왔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수원시의 경우 관내 84개 초등학교 중 교장, 교감까지 포함해 전 직원이 여성인 학교가 무려 4곳입니다.

이처럼 여교사의 비율이 높다 보니 학교 운동장에 가면 실제로 뛰어다녀야 할 학생들이 안 보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난해 수원 영통초등학교의 경우 신동영 회장이 강사로 근무하며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영통초는 2009년 '100대 교육과정 연구학교'에서 1등을 했을 정도로 우수 교육 학교로 손꼽히지만 체육과정의 전문성은 전무했다고 한다. 수원시 굴렁쇠 굴리기 대회에서 5위를 한 것이 유일한 체육대회 기록이었다.

그러나 스포츠강사가 지원되면서 180도 달라졌다. 수원시장기대회 축구부문 3등, 놀이배구·핸드볼 등 각종 스포츠대회 수상, 수원시교육청 '줄넘기인증제' 획득 등 신 회장이 단 1년간 근무하며 일궈낸 성과다.

신 회장은 "체육대회행사 참여 시 아이들의 참여율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의 응원이 대단했다"며 "학부모들의 상담요청도 많은 편이다"라고 전했다. 이는 체육을 잘하지 못했던 아이들에게서 변화가 더 크다.

아이들이 전문적으로 체육과목을 배우고 체육대회에도 출전하면서 운동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얻어 운동을 잘 못하던 아이들도 즐겁게 참여하게 됐다고 한다.

신 회장은 "스포츠강사 연합회는 매년 자체 연수를 갖고 수업과정 개발을 연구하는 등 교사 역량강화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며 "무상급식, 영어교육 등의 예산에 비하면 체육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이 많이 부족한 편이라, 현장에서는 체육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더 인지하고 있는 만큼 스포츠강사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벼랑끝에 선 두 남자 박찬호-이승엽

日오릭스서 10승 ·

벼랑끝의 두 사내가 한자리에 모였다. 미국과 일본프로야구를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의 유니폼을 입으면서 올 시즌



누군가는 "꿈"이라고 했다. 어떤 이는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꿈도 아니었고, 거짓말도 아니었다. 한국야구 최고의 타자 이승엽(35)과 최고의 투수 박찬호(38)는 지난해 말 연이어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와 계약하면서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야구팬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상상하고 꿈꾸었을 법한 일이 2011년 마침내 현실로 펼쳐지게 됐다.

'국민타자' 이승엽은 과연 재기에 성공할까. '코리안특급' 박찬호는 새로운 무대에 적응할 수 있을까.

이승엽 "홈런 32개를 치고 싶다"

타율 0.163(92타수 15안타) 5홈런 11타점. 지난해 이승엽이 일본프로야구 1군 무대에서 거둔 성적이다. 2008년 45경기에서 8홈런, 2009년 77경기에서 16홈런. 최근 3년간 총 홈런수는 29개에 불과하다. 연평균 10개도 채 되지 않는다. 일본 내에서도 "이승엽은 끝났다"는 평가와 함께 "새로운 팀을 물색하기도 어렵다. 기껏해야 5천만엔짜리 선수다"는 혹평도 나왔다.

그럼에도 오릭스는 이승엽의 가치를 인정했다. 계약기간 2년을 보장하며 연봉 1억5천만엔(약 20억원)의 조건을 내밀었다.

지난해 연봉 6억엔(약 80억원)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지만, 적어도 아직은 '5천만엔짜리 선수'는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다. 오릭스는 기회만 보장받으면 거포의 위용을 다시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승엽은 오릭스에 입단하자마자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30홈런 1백타점을 올리겠다"며 입술을 깨물었다. 나아가 그는 "올해 안에 32개의 홈런을 치고 싶다"고 했다.

한국에서 9년간 3백24홈런, 일본에서 7년간 1백44홈런, 한일통산 4백68홈런을 기록 중인 그는 올해 안에 한일통산 5백홈런을 채우고 싶은 욕심이다.

박찬호의 오릭스행은 충격적이었다. 한국인 최초의 메이

30홈런 합작 정조준

풍미했던 한국 야구의 간판 투수와 타자인 박찬호(38)와 이승엽(35)이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다. 과연 이들의 소망은 이뤄질까.



일러스트 · 유현호

저리거, 아시아 최다승 투수…. 그런 박찬호가 17년 간의 메이저리그 생활을 청산하고 일본프로야구에 진출한다는 점도 뜻밖이었지만, 일본에서 뛰게 될 팀이 이승엽과 같은 오릭스라는 사실은 더욱 놀라웠다.

박찬호는 1994년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뒤 지난해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 개인통산 1백24승을 기록했다. 일본인 투수 노모 히데오의 1백23승을 넘어 아시아 투수 메이저리그 최다승 기록을 새롭게 작성했다.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관심을 보이는 구단은 모두 마이너리그 계약을 제시했다. 또한 미국에서는 선발투수보다는 불펜투수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선발을 보장한 오릭스의 러브콜은 구미가 당겼다.

박찬호 "미국 갔을 때 처럼 일본 무대 도전"

연봉 1백20만 달러, 인센티브 1백만달러 등 최대 2백20만달러(약 24억7천만원)의 조건은 둘째였다. 박찬호는 "일본 진출이 아니라 일본무대 도전으로 봐 달라. 미국에 처음 갔을 때처럼 도전하겠다"며 초심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 메이저리그와는 또 다른 일본야구를 접하고 경험하는 것도 자신의 야구인생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야구에서 선수와 감독의 궁합은 매우 중요하다. 선수의 생사여탈권을 감독이 쥐고 있고, 거꾸로 감독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선수를 잘 만나야한다.

오릭스의 오카다 아키노부 감독의 별명은 '지장보살(智將菩薩)'이다. 선수에게 한번 기회를 주면 끝까지 믿는 스타일이다. 일본야구의 풍토가 번트와 히트앤드런, 잦은 투수교체 등 이른바 '스몰볼'이 대세지만 오카다 감독은 이 같은 조류를 거부하고 있다. 한마디로 '감독의 야구'가 아닌 '선수의 야구'를 지향한다. 이런 점

"끝났다고?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마. 32홈런을 쳐서 한일 통산 5백 홈런을 채우고 싶다. 최근 3년간 1군 무대 출장 적어실전감각 떨어진 것은 밀어치기 훈련으로 기본기를 다시 찾으면 된다. 경험 많은 박찬호 선배에게 도움도 얻겠다." 이승엽





"미국 진출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일본 무대에 도전하겠다. 메이저리그와 또 다른 일본야구를 접하고 경험하는 것은 앞으로의 야구인생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구안이 뛰어난 일본 타자들에 대한 연구는 승엽이에게 조언을 받겠다." 박찬호

에서 이승엽과 박찬호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을 전망이다.

오카다 감독은 지난해 4번타자를 맡아 타율 0.331, 24홈런, 84타점을 올린 외국인 선수 알렉스 카브레라가 소프트뱅크로 이적하자 "차라리 잘 떠났다"며 환영을 나타냈다. 그 공백을 이승엽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믿고 기다려주는 오카다 감독과의 궁합 기대

오카다 감독은 2005년 일본시리즈에서 홈런 3방을 몰아친 지바 롯데 이승엽을 막지 못해 우승을 놓쳤다. 이승엽은 요미우리로 이적한 뒤에도 유난히 오카다 감독이 있는 한신전에 강한 면모를 보였다. 이런 인상이 아직도 오카다 감독의 뇌리에 남아 있을 게 뻔하다.

박찬호에 대한 믿음도 강하다. 오카다 감독은 벌써 "두 자릿수 승리를 기대한다"며 반기고 있다. 지난해 17승을 거둔 가네코 지히로와 10승을 기록한 기사누키 히로시에 이어 3선발을 맡긴다는 복안이다.

박찬호는 오릭스 입단 후 "사실 이승엽 때문에 오릭스를 선택했다"고 고백했고, 이승엽도 "박찬호 선배와 한 팀에서 뛴다니 흥분된다"며 반겼다. 외국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은 늘 외로움과 싸워야하는데, 절친한 사이인 이들이 한솥밥을 먹는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박찬호의 아내 박리혜 씨는 재일동포 3세지만 도쿄에 친정이 있다. 이승엽의 아내 이송정 씨 역시 그동안 도쿄 인근 생활에만 익숙했다. 낯선 오사카 생활이지만 아내들도 든든한 벗이 생겼다. 또한 박찬호의 두 딸 애린(5)과 세린(3), 이승엽의 외아들 은혁(6)은 또래다. 가족들끼리 서로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고 의지하며 지낼 수 있는 환경이다.

결국 원정경기가 많은 박찬호와 이승엽도 가족 걱정을 덜고 마음 편히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다. 연고지가 재일동포가 많이 사는 오사카라는 사실도 장점이다. 한국식당도 많고, 재일동포들의 응원 또한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재일동포가 많은 오사카, 안정된 가족

박찬호에게 일본야구는 생소하다. 그의 성공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야구 전문가들도 구위보다는 이 부분을 염려하고 있다. 미국 타자들과 달리 일본타자들은 선구안을 바탕으로 볼과 유인구에 방망이가 잘 따라 나오지 않는다.

웬만한 공은 커트해내는 일본타자들에게 고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찬호는 "일본 선수들을 잘 아는 승엽이에게 조언을 얻겠다"고 했고, 이승엽은 "사소한 것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돕겠다"고 화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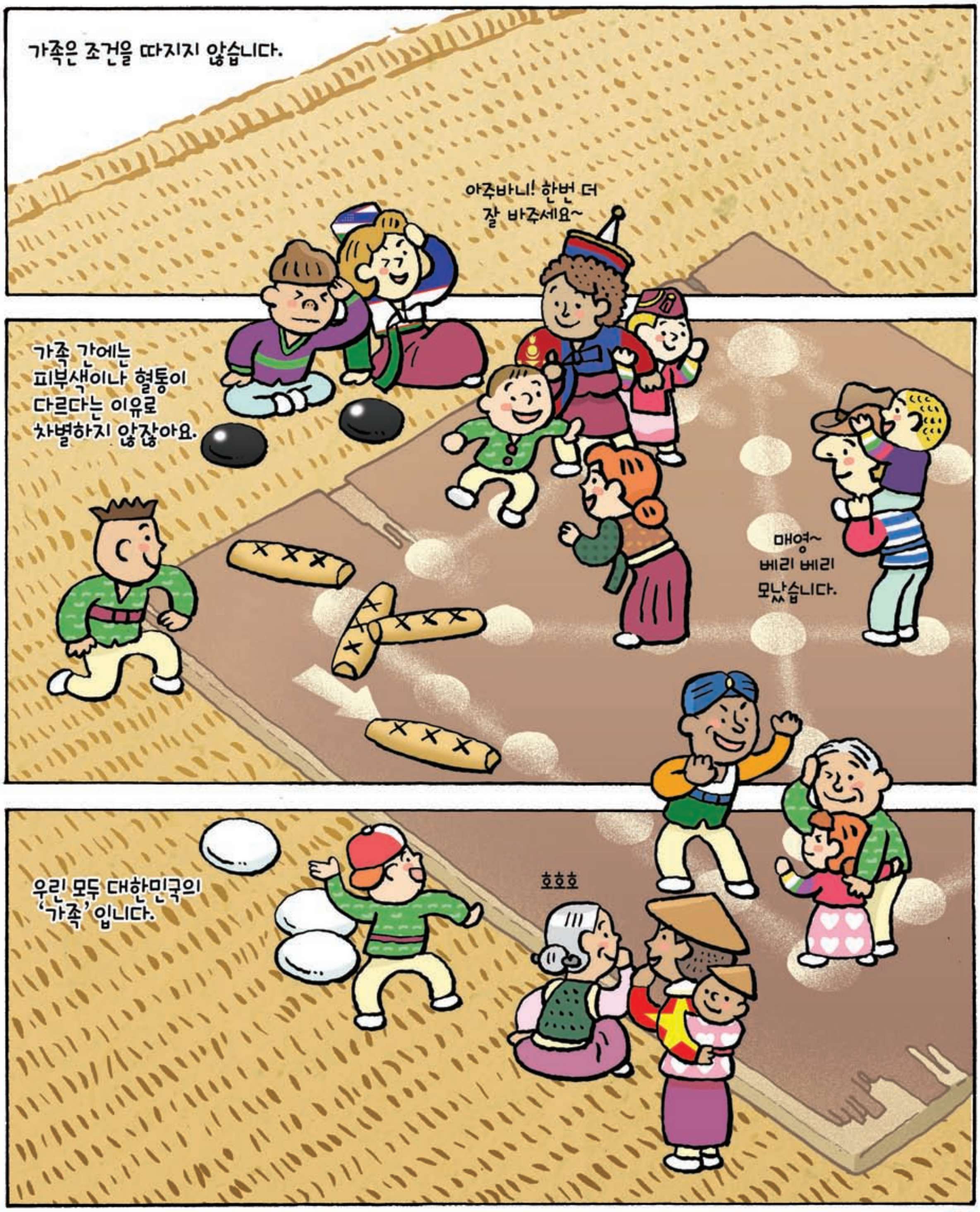
박찬호가 '적응'을 화두로 삼고 있다면, 이승엽 '재기'가 목표다. 이승엽은 지난해 간간이 출장하며 15안타를 기록했다. 그 중 홈런만 5개였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파워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1군무대에서 간간이 출장해 실전감각이 떨어졌을까봐 걱정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승엽은 "밀어치기 훈련으로 기본기를 다시 찾겠다"면서 역시 "경험 많은 박찬호 선배에게 도움을 얻겠다"고 했다.

박찬호는 10승, 이승엽은 30홈런을 올 시즌 성공의 기준점으로 잡고 있다. 한국야구 1백년사에서 최고투수와 최고타자로 평가받는 박찬호와 이승엽의 위대한 도전에 팬들의 가슴은 뛰고 있다. G

글 · 이재국 기자 (스포츠동아 체육1부 기자)

가족이란…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가족 간에 차별하는 건 나~~~쁜 거죠!!



3분 古典

박재희 지음
작은씨앗 펴냄 · 1만3천5백원

고전이 살아서 말한다
삶의 지혜와 처세술을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오늘날 '고전' 하면 '딱딱하다' '진부하다', 심지어는 '고리타분하다' 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그렇다. 대부분의 현대인에게 고전은 잠들어 있는 과거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처세술을 익힌 사람들은 고전을 두고 현대를 밝히는 등불이라고 한다. 각박하고 살벌하며 막막한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에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전략이 고즈넉하게 잠들어 있는 것이 바로 고전인 것이다.

〈3분 고전〉은 저자가 3년 전 3분짜리 '라디오 시사고전'을 맡아 그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던 고전의 좋은 구절들을 고르고 먼지를 털어 방송한 내용 중에 1백15개의 좋은 글을 선정하여 펴낸 것이다.

이 책은 고전에 대한 이미지와 고정관념을 바꿔준다. 쉽고 흥미롭고 명쾌하게 깨달음을 심어줌과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처세술을 익힌 사람들이 왜 고전을 일컬어 '현대를 밝히는 등불'이라고 하는지 깨닫게 한다. 많이 배우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생각과 결정만이 옳다고 믿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수준은 낮고 오로지 자신만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과 고집을 거두려 하지 않는다.

"적은 분량이지만 다양한 의미로 재해석한 이 책의 구절들은 불확실성의 시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신을 경영하고 인간을 경영하며 나아가 미래를 경영할 수 있는, 고전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와 처세술을 담았다."

저자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화광동진(和光同塵)'이라는 용어를 설명하며, 때로는 자신의 그 똑똑한 광채를 줄이고 세속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도 아름다운 사람의 자세라고 말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광채를 더욱 빛내려고 한다. 그러나 그 빛이 빛나면 빛날수록 주변의 사람들은 점점 멀어져간다. 잘난 이가 자신의 생각을 너무 확신하고 밀어붙이면 주변 사람들은 겁이 나서 접근을 못한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뚝 서서 잘났다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빛을 누그러뜨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로 내려가 민중과 함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능력이 있다면 출신과 성분을 따지지 않고 중요한 직책을 맡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실제로 조직의 인사를 보면 결코 능력만 가지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출신과 지역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다 보면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조직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일러스트 · 이우정

저자는 춘추전국시대 진나라가 마지막 통일의 주역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한다. 진나라를 천하통일의 주역으로 만든 군왕들은 출신과 성분을 따지지 않고 뛰어난 인재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등용하여 진나라 발전의 초석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 어느 조직이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결국 경쟁력이고 승부처라고 말한다. 닫고 사는 자가 승리할 수 없으며, 여는 자만이 결국 생존에 성공한다는 것이다. 작지만 커다란 의미, 적은 분량이지만 다양한 의미로 재해석한 이 책의 구절들은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생존 전략과 인간적인 사고, 생활방식에 든든한 마음의 양식이 되어줄 것이다.

이 책은 자신을 경영하고 인간을 경영하며 나아가 미래를 경영할 수 있는, 고전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와 처세술을 담았다. G

글 · 박병주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리더십의 본질은 '헌신'입니다. 리더의 헌신. 남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죠. – 김택진('엔씨소프트' 대표)

나를 위해 회초리를 들자

강지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상임대표



설이다. 설을 맞이하는 마음은 늘 설렌다. 올해는 좀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지만 꼭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시작한 새해가 1년 후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 채로 세월은 간다. 무섭게, 어김없이 시간은 간다.

지금의 어려움은 조금 나아질까. 지금의 '누림'은 계속 지속될까. 희망을 찾는 밑바닥에는 고통과 불안이 깔려 있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희망을 찾는다. 그런데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낙관하고 긍정하는 데서 온다. 그렇다면 낙관과 긍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냥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따라오는가. 〈시크릿〉(폴 해링턴 작)의 비밀처럼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 쉽지 아니하다. 아무리 마음먹으려 해도 잘 되지 않는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

2005년 2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는 각계 인사들의 '회초리 들기' 퍼포먼스가 있었다. 회초리를 들고 후려치는 대상은 타인이 아니었다. 바로 자신의 종아리였다. 당시 학술원 회장이던 고 김태길 교수는 아예 멍석을 깔고 무릎을 꿇었다. 당시 동덕여대 총장이던 손봉호 교수도 함께였다. 소복까지 입었다. 석고대죄(席藁待罪)의 뜻이었다. 다른 참석자들은 모두 말이 없었다. 유구무언(有口無言)이었다. 대신 한 가지 방(榜)이 내걸렸다. 리본도 달았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딱 한 문장이었다.

새 희망을 찾기 위해 나와 우리가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나와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참회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기로 했다.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었다. 자신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이 바로 희망을 찾는 지름길이다.

이들은 왜 이렇게 스스로의 종아리를 내리쳤을까. 당시 사회를 보던 나는 '내 탓', 그리고 참회, 회개, 반성이란 단어를 떠올렸다. 그리고 '나부터'라는 순서도 떠올렸다.

우리는 이따금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지금 가진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다. 그리고 그것을 고통과 아픔과 슬픔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새 희망을 찾기 위해 나는 우선 나와 우리가 지금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기로 했다. 나의 건강과 하는 일, 가족의 행복과 성취, 나라의 번영, 이 모든 것이 어찌 감사할 일이 아니겠는가.

무엇보다 나와 우리가 지금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참회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기로 했다. 나의 여러 가지 부족함, 사회의 타락과 쟁투, 나라의 시끄러움,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나와 우리의 '내 탓'에 있음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부질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 눈물나게 한 일은 없었는지…



그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었다. 자신에게 매, 회초리를 드는 것이 바로 희망을 찾는 지름길이다. 그것은 한 개인이나 단체나 기업이나 국가나 모두 마찬가지다. 지금 바로 나부터 참회한다면, 새해는 우리를 희망으로 초대해 주지 않을까. G


"눈내리면
아빠가 온다고 했어요"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아빠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잠시 슬비를 두고 떠났습니다.
2평 남짓 단칸방의 겨울.. 연탄이 줄어들 때마다,
어린 슬비의 마음도 무거워 집니다.
건강이 악화된 할머니는 빠듯한 정부지원금으로
어린 세 손자들과 버텨내야 할 겨울이 두렵습니다.
"엄마 얼굴 몰라요…"
엄마 얼굴을 그려오라는 숙제에 슬비는 고개를 떨굽니다.
슬비의 소박한 소원은 따뜻한 방에서 가족이 함께 사는 것
추운 겨울을 연탄 몇 장과 최저생활비로 버텨야 하는 아이들에게
당신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세요
국내빈곤아동 후원신청 (월 2만원) 1599-0300 www.gni.kr
굿네이버스는 국내최초로 UN경제사회이사회에서 부여한 NGO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 협의지위를 획득한 국제구호개발NGO입니다.
굿네이버스


문화체육관광부
"겨울에도
갈 곳 많은
우리나라가 참 좋아요"
올 겨울은 또 어떤 모습이 숨어있을까요?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테마별 겨울 관광 코스
가보자! 구석구석 아름다운 대한민국
인천 밤바다 짱이예요!(당일)
[상품코스]
서울출발–달동네박물관–개항박물관–자유석식–월미테마파크– 서울도착
대게먹고, 한우먹고, 백암온천 즐기기(1박2일)
[상품코스]
1일차 : 서울–이몽룡생가–중식(한약우불고기)–닭실마을–불영계곡–엑스포공원–석식(대게)–백암온천 및 숙박
2일차 : 월송정–금강소나무생태경영림 –중식(산채비빔밥)–선바위 관광지(영양고추홍보전시관) –두들마을과 이문열생가– 서울도착
남도별미/순천만갈대/향일암/오동도/담양온천(1박2일)
[상품코스]
1일차 : 서울(용산역)–광주–송광사(별미식)–낙안읍성 민속마을 관광–순천만 갈대밭–여수(별미식)
2일차 : 향일암 해돋이–여수(별미식)–오동도–담양(별미식)–대나무파크공원–담양온천 –광주–서울(용산역)
덕유산 곤도라/무주구천동/와인터널(당일)
[상품코스]
서울–대전역–무주리조트–곤도라탑승–자유중식 및 무주구천동 계곡 트래킹–와인터널–대전–서울
가야산국립공원 해인사와 생명의 땅 성주(1박2일)
[상품코스]
1일차 : 세계문화유산 해인사–중식–성주 성산동고분군
2일차 : 한개민속마을–세종대왕자태실
천년길 하늘재 트래킹과 수안보온천체험(당일)
[상품코스]
월악산 하늘재 트래킹–수안보온천
부산/외도/거가대교 (1박2일)
[상품코스]
1일차 : 서울–거제–외도/해금강–거가대교–부산(해운대) 숙박
2일차 : 동백섬–금정산성 케이블카–서울
동해의 선상크루즈와 안목항 커피로드(당일)
[상품코스]
서울–주문진항(선상크루즈)–주문진 수산시장–안목항커피거리–서울
태백산 환상선 눈꽃열차 여행(당일)
[상품코스]
영월 청령포–개별중식–영월> 태백 구간열차–태백산도착 태백산 눈꽃, 석탄박물관, 눈썰매 타기
딸기따고, 참숯가마 찜질하고 행복한 겨울여행 (당일)
[상품코스]
여주 신륵사, 개별중식–여주 참숯가마 찜질–이천 딸기
떠나시기전에,
홈페이지 내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와 이벤트를 미리 만나보세요
기간 : 12월 30일부터
www.visitkorea.or.kr
Korea Be Inspired
한국관광공사